힙합에 푹 빠진 디바들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제3077호 www.metroseoul.co.kr

오승환·손흥민 맹위 떨지다

2014 부산 정보통신기술(ICT) 장관회의 19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2014 부산 정보통신기술(ICT) 장관회의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50여개국 ICT장·차관, ITU 사무총장·차장 등의 참석자들은 'ICT의 미래 역할 – 포용적 ICT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글로벌 ICT 현안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뉴시스

“육아엔 엄마·아빠가 따로 없죠”

김희정 여가부장관 인터뷰

일과 가정의 양립 중요해
아빠 휴직때 급여등 혜택
최악의 출산율 능동 대처
국가가 아이를 돌봐 줘야
'학교밖 청소년' 지원확대

최근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아빠의 육아 생활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간 엄마의 전유물로 여기던 육아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는 세태가 반영된 것이다.

소위 '워킹맘'이 증가하며 남녀 모두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장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는 고령화와 함께 최악의 출산율 저하라는 위기 상황을 맞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은 "오는 2750년 우리나라 인구가 '0'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에 나섰다. 전국 단위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 확대하고, 28만여 명에 이르는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또 '아빠의 달', '가족 사랑의 날' 등을 도입해 개인과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했다.

◆ "이젠 양성 평등 이야기 할 단계"

김 장관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방안이다. 그는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했을 때 곧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또 일하는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를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력 단절 여성은 195만5000명이며,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조원에 달한다. 김 장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아 종일제 돌봄 대상을 만 12개월 이하에서 만 24개월 이하 아동까지 확대하고 아이 돌봄 종일제 서비스를 임신 기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국 140여 곳의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해 맞춤형 직업 상담부터 직업 교육 훈련, 인턴십,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장관은 또 "남성도 가사·육아에 동참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부터 '아빠의 달'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시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 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 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원)로 상향됐다.

◆ '학교 밖 청소년' – 체계적 관리 지원

김 장관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눈길을 돌렸다. 이런 청소년은 현재 28만여 명에 이른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학교 밖 청소년 실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지난해 3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바로 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아이들이 나이대에 맞게 충실하게 자라는지 파악할 길이 전혀 없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 관리 부재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학업적 건강이 모두 구멍 나는 사회 경제적 손실"이라며 "여가부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를 신설, 관리의 사각 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파악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오늘부터 전국에 비

많은 곳 120㎜… 그치면 기온 '뚝'

이번주 중반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22일부터 기온이 다시 크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밤에 서쪽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20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는 21일까지 계속되고 강원도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은 22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20일 늦은 밤부터 21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관측됐다.

이들 지역의 총 강수량은 40~80㎜로 예측됐으나 많은 곳은 120㎜ 이상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11~18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그친 후 북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면서 22~23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함께 건강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다혜기자 yeh@

더 많은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는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판교 환풍구 사고 모든 책임 지겠다"

19일 오후 환풍구 덮개 붕괴 사고로 16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의 환풍구 주변에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인근 상가에서 마련한 국화 화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행사 주관 이데일리 회장… 법률지원단 출범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수습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오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이 만나 회의를 진행했다.

김남준 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속한 사고수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도와 성남시, 이데일리는 사고를 유발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와 관련 주최자 명칭 사용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어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곽 회장은 "구조적인 문제의 부주의로 인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다. 책임 있는 언론사로서 행사 주관사로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대책을 논의한 후 이같이 말했다.

곽 회장은 회의를 마치고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날부터 대책본부에서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를 시작했다"며 "(이데일리는) 보상 부분을 포함해 모든 것을 대책본부에 위임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합동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추락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수사관 60여명을 투입해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로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 27명이 18.7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통영함 장비 평가서 위조 예비역 구속

서울중앙지검은 통영함에 탑재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전 대령은 2009년 11월 미국 H사가 제출한 통영함 HMS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일부 '미충족'이었음에도 전부 '충족' 되었다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 명의 공문서인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대령은 허위작성한 문서를 사업관리실무위원회 참석 위원들과 사업관리본부장에게 제출했다.

검찰은 또 오 전 대령과 함께 근무하면서 소해함에 탑재할 장비인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구매 업무를 담당한 최모(47) 전 중령도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전 중령은 2010년 5월께 소해함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파탐지기 입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H사가 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명의 제안요청서의 성능 관련 내용을 두 차례 걸쳐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박 시장의 화룡점정 1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4 중국의 날' 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추궈훙 중국대사가 중국 용탈 눈에 눈동자를 그리는 '화룡점정'을 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노인 의료비 급증… 2060년 건보적자 132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말미암아 노인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재정에 감당하지 못할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에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2012년)' 자료를 보면,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적자규모가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검, 신원미상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

●앞으로 신원미상이나 타살 의심 변사체가 발견될 경우 검사가 법의학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검시에 나선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그동안 변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직접 검시의 경우 법의학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의학자문위원회를 대검에 구성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30% 깎아줘"

●서울시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이상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승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상위 20개 시설들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459억원을 부과한 뒤 이 중 119억원(감면율 25.9%)을 감면해 줬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모두 148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매겨졌다가 46억원이 감면됐다.

증인 '겹치기 채택' 속출

상임위 간 주요인사 확보 신경전

19일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여러 상임위가 일부 주요인사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겹치기 채택'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16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이미 16일 법사위에 참고인으로 나왔지만 미방위도 부르기로 한 것이다.

미방위 홍문종 위원장은 "이 공동대표의 경우 사실은 저희가 불러야 한다"며 "다른 데(법사위)에서 증인을 인터셉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건설과 싱크홀 문제로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나란히 부르기로 했고, 정무위와 산업위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을 증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이번 국감은 재벌총수 등 거물급 증인들이 나오지 않아 맥 빠진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상임위별로 서로 국민의 관심이 쏠린 주요인사를 확보하려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윤다혜기자

라오스서 체포된 탈북자 6명 한국행

라오스 현지에서 경찰에 체포됐던 탈북자 6명이 조만간 한국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19일 "라오스에서 붙잡혔던 탈북자 6명이 18일 태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이들은 (17일)석방된 뒤 태국으로 입국해 이민국의 탈북자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며 "탈북자들은 불법 입국에 대한 약식 재판을 받고 1개월 뒤쯤 방콕을 거쳐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대 여성 1명, 30대 여성 3명, 40대 여성 1명, 40대 남성 1명으로 구성된 탈북자들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안내인의 도움으로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잠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태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16일 오전 안내인의 "차량에 탑승해 있으라"는 지시를 듣고 라오스 북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라오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혜기자

금융시장 공포 버냉키쇼크급

국내외 증시 변동성지수 1~2년만에 최고치

세계 경기둔화 우려에 국내외 금융시장의 공포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지의 증시 변동성지수가 일제히 1~2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시의 대표 지표인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는 지난 15일 26.25로 지난 2012년 6월 이후 최고치(종가 기준)를 기록했다.

올 들어 7월 10.32의 저점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변동성지수도 16일 2년 3개월 만의 최고치인 31.52로 치솟았다. 올해 6월 초 저점 12.71의 2.5배에 달한다.

일본 닛케이 변동성지수도 17일 30.07로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내 증시의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17일 18.65로 상승하며 지난해 6월 26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 저점 9.74와 비교하면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최근 국내 외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지난해 6월 '버냉키 쇼크'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외환시장의 공포지수도 크게 올라 도이치은행이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 스위스 프랑 등 9개 환율의 3개월 내재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환율변동성지수는 15일 7.81로 올해 2월 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현정기자 hjlim1@metroseoul.co.kr

오토캠핑 특별판 배포 메트로신문은 가을을 맞아 오토캠핑 특별판을 제작, 17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역과 주요 아파트에 배포했다.

"신체사진 무단사용 초상권 침해 인정"

합성으로 얼굴을 바꿨다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사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과 주위 시점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A씨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사는 2012년 3월 인터넷에서 A씨가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내려받아 얼굴 부분만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해 합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영어회화프로그램 광고에 사용, A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윤다혜기자 yd4@

하늘공원의 억새 물결 19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억새축제'에서 시민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공공기관 임금 3.8% 오른다

민간기업 파급 기대

내년 공공기관 직원 연봉이 올해보다 3.8%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3.8%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개별 공공기관이 직원 임금인상률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본 가이드라인이 된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8%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금 평균 상승률은 2010년 동결 이후 2011년 5.1%로 올랐다가 2012년 3.5%, 2013년 2.8%,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져 왔다.

정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이 민간기업에도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동네조폭' 916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동네조폭'에 대한 단속을 벌여 9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일반 폭력사범 구속률이 0.68%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동네조폭 구속자 비율은 34.3%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행 유형은 업무방해(572건)가 가장 많았고 ▲갈취(839건) ▲폭력(490건) ▲재물손괴(65건) ▲협박(43건) 등의 순이었다.

또 전과가 20건을 초과하는 동네조폭이 318명(34.7%)이나 되고, 최다 전과자는 69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다혜기자

이별통보에 여친 조상묘 파헤쳐

metro HongKong

중국에서 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지린성 쓰핑시 리수현 공안국은 최근 마을 주민 천모씨로부터 조상 유골이 사라져 있고 시체는 도둑 맞았다는 신고를 받았다.

사고 발생 지점에 도착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은색 승용차가 이 무덤 근처를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CCTV(폐쇄회로 TV) 조사 끝에 차량 번호를 입수한 경찰은 이 승용차가 쑨모씨가 렌트한 차량임을 밝혀냈다.

천모씨에게 쑨모씨를 아느냐고 묻자 천모씨는 쑨모씨가 자신의 누나와 몇 년간 동거한 남자라고 말했다.

쑨모씨는 여자친구가 밖에서 행실이 조신하지 못하다며 항상 의심하고 툭하면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다 올해 여자친구가 떠나버리자 여러 차례 찾아와 다시 관계를 이어가자고 했지만 번번히 거절 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쑨모씨는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차를 빌려 그 그의 조상 묘지에 찾아가 무덤을 파고 시체를 훔쳐 도망가 버렸다.

현재 용의자 쑨모씨는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정리=조선미기자

不甘分手 挖前女友祖墳

근로자 67% "연금 필요 없다"

metro Mexico

멕시코 근로자 절반 이상이 노후 계획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생산성 연구소(IMC O)가 최근 실시한 노후 대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연금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퇴 이후의 삶은 오직 신만이 아실 것"이라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응답자의 33%만이 "노후연금은 필수"라고 말했다.

멕시코 은퇴 연금 위원회는 이와 관련 "노후 생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마리오 로도사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Fórmula para h
crezca tu fondo

'인니의 오바마' 오늘 취임

조코위 대통령 친 서민·현장 밀착형·개혁 이미지 주목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 국가,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첫 직선제 정권교체에 성공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사진) 대통령이 20일 취임한다.

AP·AFP 등 외신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 취임식은 상원 격인 국민협의회 의사당에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특사인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등 세계 정상과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조코위 신임 대통령은 수십 년 간의 독재체제를 종식하고 2004년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인도네시아에서 군부와 기성 정치권 출신이 아닌 첫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치적 무명에 가까웠던 조코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인도네시아 현대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다. 조코위 신임 대통령은 중부 자바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구 사업으로 성공했다. 2005년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이 이끄는 투쟁민주당 소속으로 인구 52만 명의 중소도시 수라카르타 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당선 후 시행했던 중소 지역 기업 육성 정책이 효과를 거두며 2010년 90%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도시 시장으로 재선됐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해결을 모색하는 현장밀착형, 소통형 리더십으로 주목받은 그는 2012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고 나서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특히 개혁적 이미지로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로 불리며 새 정치의 희망으로 부상했다.

/국제팀기자 kmkoo@metroseoul.co.kr

中 베이징 '마스크 마라톤' 1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4 베이징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스모그가 가득 찬 톈안먼 광장을 달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 "IS와 장기전 채비"

"미국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 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해 장기전을 준비 중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17일 로이드 J. 오스틴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은 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사령관은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대신 시리아와 이라크 연합 규합에 IS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동맹군의 공습이 IS의 보급망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쯤이면 IS 세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seonmi@

"여가부, 모든 국민과 함께합니다"

사람이야기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장관은 여성가족부를 '위기의 순간 함께 해주는 부처'라고 소개했다. '가족'이라는 우리 사회 최소단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부서라는 설명이다.

그간 여가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게임 셧다운제' 등 규제 중심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에 반대한다. 그간 여성이 저만 사회적 상황이 낮은 사회에서는 디소 잡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성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처의 지위를 갖게 됐다고 설명한다. 특히 여성과 남성, 가정, 청소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가 바라보는 현재와 앞으로의 여성가족부는 어떤 부처인지 들어봤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여성·청소년·가족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살면서 한번은 관계가 되는 부처다. 여성 관련 일, 가정 양립과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28만명의 청소년을 돌보는 부처이기도 하다. 가족의 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내년 예산안 중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전체 정부 부처 가운데 2015년 예산 증액비율로 보면 여가부가 1등이다. 그러나 절대치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증액된 예산은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에 투여할 예정이다. 하나는 청소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동안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수련시설의 등급이나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적합한지 등을 인증받게 돼 있다. 또 학교를 다니지 않는 28만명의 청소년을 위해 160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만든다. 이 센터는 필요한 교육과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환경 조성, 건강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 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업무가 미혼모와 재취업 여성에 관한 것이다. 미혼모들이 대부분 양육비 지원이 안돼 어려움을 겪는데,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도 늘린다. 현재 인턴십과 리더십을 위한 교육은 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한 훈련이나 코칭이 없어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을 이끌어주고 상담과 교육을 해주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40개소에서 내년 145개소로 늘린다.

예산 증액 내용과는 별도로 '일·가정 톡톡 앱'이라는 것이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신을 하고 싶지만 어려운 여성들은 이 앱을 이용해 난임·불임 부부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남성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워킹대디를 위한 정책의 산물이 '아빠의 달'이다. 부부 중 두 번째 육아 휴직자(통상 아빠일 가능성이 높음)에 대해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다. 또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했다. 현재 이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놀이공원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던지 마트에서 장을 보면 포인트를 더 준다던지 물품구매시 수요일에는 할인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외국의 경우 네덜란드 모 디자인 회사는 책상 테이블에 줄이 달려 오후 6시가 되면 천장위로 올라간다고 한다. 업무를 끝내고 퇴근하라는 의미다. 이런 것이 가족친화경영이다. 이를 인증해주는 것이 여가부다. 해마다 신청기업이 늘고 있는데,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여가부 인증을 받으면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회사 대표가 출국시 출입국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522개 등록 기업이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183곳이다."

-최근 주창한 '넛지' 해법은 무엇인지

"기존 온라인 게임 규제정책인 셧다운제도가 '부모선택제'로 바뀠다. 부모선택제는 부모가 아이의 상황을 보면서 게임을 줄여 줄 수도 묶을 수도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 결정을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와 대화를 해야 하고, 내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부모 입장에서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가부 정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의 동참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넛지는 기분 좋은 동참을 의미한다."

-성매매 금지법 10년간 성과는

"제일 큰 성과는 이무래도 '성매매는 범죄'라고 규정한 것과 국민이 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만 해도 '성매매가 줄고 살수 없는 것'이라고 비저 인식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위안부 피해기록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한 이유는

"위안부 문제를 한일간의 다툼이 아닌 여성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로 접근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피해 할머니들도 피해자가 아닌 인권운동가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의 활동과 피해 사례 등을 자료로 기록물화하고 있다. 이를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면 일본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나온다해도 변함없는 사실로 유네스코에 기록되는 것이다."

-어떤 여성가족부를 만들고 싶은가

"일·가정 양립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인 반면 이혼율은 높은데 이런 식이라면 27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0명이 된다고 한다. 일·가족 양립이 필요한 시기이고 이를 위해 워킹맘, 워킹대디를 지원할 것이다. 현재 이 일환으로 워킹대디를 위한 '아빠의 달'을 10월부터 도입해 남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운영하고 이를 기업에 동참시키고 있다. 가족친화경영을 인증해주는 것도 여가부가 하는 일이다. 매년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 받은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market index <17일>

코스피	코스닥
1900.61 (-18.17)	547.70 (+2.21)
금리	환율
2.25 (변동없음)	1065.50 (+3.50)

휴플러스 핑크플러스 유방암 예방 걷기대회 11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휴플러스 핑크플러스 유방암 예방 걷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휴플러스 제공

공정위 출신 낙하산 21명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리 감독기관의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공정위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05년~현재)간 공정위 출신으로 산하기관, 관리 감독기관의 임원에 임명된 인사는 21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채신호기자 csh@

로또복권 제621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2	16	17	[illegible]	[illegible]	45	40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020,261,233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3,780,236
3등	5개 숫자 일치	1,424,643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 겸 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은호
광고문의 02)721-9834~3
독자센터 02)721-9861

휴대폰 업체, 가격인하 압박에 '곤혹'

여론·정부 집중 포화 … 논란에 적극 해명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을 두고 부심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비판이 이동통신사에 집중됐으나 점차 국내 단말기 제조사에게 옮아 붙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 해외보다 국내 출고가가 더 비싸다는 논란부터 단말기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심정이다.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공식입장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가 해외와 국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통신사 보조금을 제외한 약간의 가격 차이는 해외 출시 제품과 달리 국내 출시 제품에 DMB와 광대역 LTE-A를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삼성전자가 단말기 가격에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을 포함시켜 출고가를 부풀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즉각 해명하기도 했다.

또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이 17일 열린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이동통신3사-제조사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이 사장은 국내 단말기 출고가가 해외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출고가는 제품 특성상 (국가별) 차이가 있다"며 "출고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원비에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격 인하로 수익성 악화 우려

계속되는 해명에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의 압박 역시 제조사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제조사 측은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단말기 값을 내리면 수익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는 만큼 역으로 해외에서도 가격 인하 요구가 나올 수 있다. 단말기의 경우 내수 시장보다 해외 시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통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제조사는 가격 대비 사양이 높은 중저가형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다음달 초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모델의 출고가는 40만~60만원 선으로 알려졌으며 이통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더하면 실 구매가는 30만원 밑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삼성전자도 연내 의차폰을 선보이며 내년 초 새로운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 측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더 출시하는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에 양사가 출시하는 모델이 가격대비 사양이 높아 출고가 인하와 마찬가지로 봐야한다고 해석한다. 이번 보급형 모델 출시가 단통법 이후 침체된 이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혜인기자 hjung@metroseoul.co.kr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개장 후 첫 주말 제2롯데월드 저층부 개장 후 첫 주말인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찾은 시민들이 여지없 수조 안에 든 물고기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LG, LCD TV 8150만대 판매 호조

전세계 LCD TV 시장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8150만대 팔아 세계시장의 36%를 점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디스플레이서치의 15대 메이저 브랜드 판매 전망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LCD TV 판매량은 4800만대로 지난해(4310만대)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3350만대를 팔아 2013년(2910만대)보다 15%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과 LG의 올해 점유율 합계 예상치는 37.5%로 작년(34.8%)보다 2.7%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LG의 점유율 합계는 2010년 30.0%에서 2011년 30.8%, 2012년 33.2%로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디스플레이서치는 "두 회사의 비중은 매우 강한 시장 지배력"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업체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삼성, LG에 이어 중국 TV 메이저 중 선두주자인 TCL이 올해 LCD TV 1430만대를 팔아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5~7위는 중국의 하이센스(1천150만대), 스카이워스(950만대), 창홍(780만대)이 차지했다. 하이센스, 창홍이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올리면서 중국 업체의 전체 시장 점유율도 15%에서 26%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정혜인기자

정유업계 4분기 실적 '파란불'

중국 수출 기대감에 난방기 가동 성수기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정유제품의 덤핑 수출로 적자에 허덕이던 국내 정유업계가 실적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

올해 7월 45만t, 8월 20만t의 정유제품을 순수출했던 중국 정유업계가 9월 들어 32만t을 순수입하며 3개월만에 순수입으로 돌아섰다. 이는 중국 정유업계가 정제마진 하락을 견디지 못해 정제설비 가동률을 줄였기 때문이다. 4분기에도 중국의 순수입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내 업계의 중국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난방 기름 가동해야 하는 겨울철 성수기로 들어서 국내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중국 정유업체는 정제설비를 꾸준히 증설하며 공급을 늘려왔다. 결국 중국은 남아도는 물량을 국제 중개시장에 헐값에 처분했고 국내 정유업계도 싼 가격에 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다.

실제로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한 정유제품의 배럴당 복합정제마진은 1월 평균 6.55 달러에서 8월 4.42 달러로 32.5% 급락했다. 이 때문에 국내 정유업계는 올해 상반기 정유 부문에서 GS칼텍스가 2369억원, 에쓰오일 2059억원, SK에너지 179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후발주자인 현대오일뱅크만 현대적인 공장시설로 공정을 줄여 1428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지만 영업이익률은 1.3%에 그쳤다.

하지만 4분기는 난방유 등 수요가 커지는 성수기다.

8월을 제외하고 난방을 시작하는 10월부터 11~1월 석유제품 수요가 늘어났다.

/채신호기자 csh@

HNT 하나투어
HWedding
그녀와 그남자가 선택한 결혼준비
하나투어
결혼 대박람회
Marry me?
찾아오는길
하나투어 결혼 대박람회
일시 2014년 11월 15일(토요일)~11월 16일(일요일)
장소 호림아트센터(압구정 로데오역 도보 5분거리)
시간 : 오전 10:00~오후 7:00
상담문의 02) 2127-1234

KB금융 차기회장 선택 이틀 앞으로…

내·외부 후보 윤종규·하영구 '2파전' 예상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됨에 따라 결선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16일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지동현 전 국민카드 부사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등 4명의 2차 후보군을 확정 발표했다. 회추위는 오는 22일 후보별로 90분 내외의 심층 면접을 통해 이사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 1인을 내정할 계획이다.

일단 2차 후보군은 내부 출신 3인과 외부 출신 1인 구도로 짜여지면서 경합이 치열하다.

금융계 안팎에서 흘러 나오는 여론을 종합해보면 윤 전 부사장과 하 행장이 내부와 외부를 대표해 '2파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전 부사장은 KB금융을 잘 알 뿐 아니라 임직원의 신망이 두텁다는 점에서, 하 행장은 정관계에 인맥이 넓은 리더라는 점에서 급부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인의 후보들은 각자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적임자임을 역설했다.

김기홍 전 수석부행장은 지주사 설립 기획단장을 맡아 그룹 경영체제의 기틀을 짠 당사자다. 김 전 부행장은 국민은행을 경영했던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KB 직원들은 경쟁력 있고 우수한 인재들로 조직이 안정되지 않아 능력을 다 펴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KB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조직 안정을 통한 장기적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규 전 부사장은 2002년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시절 김정태 전 행장이 삼고초려 로 영입한 인사다. 부행장으로서 재무 전략 영업 등을 두루 경험해 능력을 검증받았으며 KB 내부에서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 받는다.

그는 "내부 출신이 KB 회장이 된다면 직원들의 자긍심 회복과 함께 조직의 화합과 결속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영업력과 고객 신뢰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화한 성품을 갖춰 KB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지동현 전 부사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조흥은행 부행장, LG카드 부사장,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을 역임했다.

지 전 부사장은 "금융 과학'에 근거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은 4인의 후보자 가운데 유일한 외부인사다. 차기 KB회장 도전을 위해 은행장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하면서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하 행장은 은행장으로서만 14년간 재직하면서 쌓은 인맥과 경험, 글로벌 경영 감각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화하고, 고객도 글로벌화하는 상황에서 KB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차기 회장 최종후보 4명 중 3명을 내부출신 인사로 선발하면서 조직내부에선 KB금융이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내부 출신 회장이 탄생하길 강력히 바라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구도를 보면 KB 내부의 분위기를 감안해 내부 출신을 중용하겠다는 의지가 다분해 보인다"면서 "최종적으로 어디 출신 인물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KB의 지배구조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 것"이라고 전했다.

KB금융 노조의 움직임도 변수다. 내부 출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노조가 외부 출신인 하영구 씨티은행장을 지목하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반면 하영구 씨티은행장이 유력한 후보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 행장은 차기 KB금융 회장에 도전하기 위해 임기 1년 5개월을 남기고 행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하 행장이 현직 행장직을 보가하면서까지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KB금융지주를 새롭게 이끌 차기 회장은 다음달 2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임된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KB 회장후보(왼쪽부터) 김기홍 윤종규 지동현 하영구 /연합뉴스

손보사 보험사기 66% 자동차와 연관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액수 총 1조7581억원 중 자동차 관련 액수는 1조1751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적발액수의 66%에 달한다.

적발인원의 경우 올해만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생명·손해보험 사기 총 적발인원(4만714명)의 74.4%에 달한다.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손익분기점을 넘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AXA·한화손보·더케이손보·롯데손보·MG손보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9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가집계 포함)은 91.7%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보다 5.5%포인트 감소한 수치지만 손익분기점인 적정 손해율 77.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겨울 등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영향과 상관없이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 보험사기 증가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

금감원 Q&A

가입한 보험계약 한눈에 확인하려면?

Q 제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오래돼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다른 상품 구매시 자신도 모르게 가입돼 보험계약 정보를 잘 알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정보를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하고 싶다면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두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인터넷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신청일 다음날 오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신청일 현재 조회 대상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된 계약에 대한 보험회사명과 상품명, 증권(계약)번호, 모집점포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다만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지급돼 계약이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두 협회에 직접 방문해 조회해도 됩니다. /정리=김형석기자

산업단지 우수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협약식

"우수기업 든든히 지원해 드립니다" 우리은행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우수기업 육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우수기업 육성과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서비스(T.O.P)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순우 은행장(사진 오른쪽)이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증권사 수신금리만 내리고 대출은 그대로

대형 증권사 10곳 CMA 금리 0.25%p 인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에 이어 증권사들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의 수신금리를 재빨리 인하했으나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증권사 10곳은 한은의 금리 인하 직후 모두 CMA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거나 내릴 예정이다.

이로써 증권사들의 CMA 금리는 지난 2009년 2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일부 증권사는 CMA 금리는 물론 위탁자와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예수금 적용 금리도 1.28%에서 1.03%로 0.25%포인트 내리는 등 수신금리를 대부분 낮췄다.

그러나 증권사가 신용융자에 적용하는 대출금리 인하 계획에 대해서는 모두 검토 중이라고만 밝혀 발빠른 CMA 금리 인하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증권업계에서는 은행처럼 예금자금을 대출로 운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수신금리와 여신금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회사들이 재빨리 수신금리를 빨리 낮추고 여신금리 인하는 지연하면서 그로 인한 수익을 추구한다"며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증권사 자기거래 '극심'

10대 증권사 알고도 묵인… 내부통제 방식 개선 시급

Issue & View 초단타매매 과다우려

/김현정기자 hjk.m@metroseoul.co.kr

증권회사 일부 직원들이 자신의 계좌로 초단타매매를 하여 과다한 수수료 수익을 챙겨 눈총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직원의 자기거래의 경우 업계의 자율적인 내부통제에 맡기고 있어 불법매매가 아닌 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수료 수익창출에 몰입하다보면 일반 고객 계좌 운용은 뒷전이 될 우려가 높아 증권사 내부통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증권사의 과다한 자기매매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흠(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10대 증권사 임직원 중에서 올해 상반기 자기매매가 하루 평균 10회 이상을 넘는 임직원이 43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의 한 직원은 6개월간 2만3310회를 매매해 하루 평균 매매 주문 횟수가 190회를 넘었고 대우증권의 한 직원은 상반기 1만8023회 매매한 것으로 보고됐다.

상반기 증권사가 자기매매를 통해 거둬들인 수수료가 215억원에 달한다. 하루에 10회 이상 자기매매한 직원이 1인당 평균 1345만원을 회사에 기여한 셈이다.

이 기간 2만회 넘게 자기매매한 직원의 경우 증권사에 2억3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마디로 증권사들이 수익성 측면에서 과다한 자기매매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얘기가 된다.

김 의원은 "증권사 직원들이 이렇게 한다면 고객서비스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증권사에서도 말리지 않고 묵시적으로 둔다는 건 매매수수료가 (증권사에) 엄청나게 기여한다는 것인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증권사 직원의 주식 투자는 2009년 도입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 직원 1인 1계좌에 한해 합법으로 인정됐다. 금액과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관리감독은 증권사의 내부통제에 자율적으로 맡긴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후속 대책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증권사 임직원이 가명 계좌로 투자했거나 단타매매로 시세조정을 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로 처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국감 답변에서 "증권사들이 어려우니까 성과 위주로 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하고 과도한 매매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원칙이 지켜졌다"고 답했다.

그는 "증권사의 형식적인 내부통제 방식을 개선하고 상식에 벗어난 부당행위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실태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우리나라에서 단타매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된 것은 단타매매를 좇은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개인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여지가 있으므로 불법 행위에 대해선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 한달간 봉사 릴레이' 한화생명은 그룹 창립 62주년을 맞아 10월 한 달간 소외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릴레이로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은 최근 대전시 동구 대동 지역에서 독거노인 33가구에 연탄 300장씩 총 1만장의 연탄과 인터보일러 10개를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화생명 재무관리사 등 임직원 400여명이 참여했다. /한화생명 제공

'스마트폰 지원 풍성한 이벤트 진행' 우리투자증권은 다음달 14일까지 풍성한 가을맞이 스마트폰 지원 이벤트를 벌인다. 단통법 시행으로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 구매를 망설이는 증권 고객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벤트에 참여한 뒤 스마트폰에 우리투자증권 애플리케이션인 '머그 스마트(mug Smart)'를 설치하고 주식 선물·옵션을 거래하면 매달 1만원씩 총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우리투자증권 제공

내게 맞는 다리미 선택법은?

전순이 주부 경제학

정갈하게 다림질 된 와이셔츠와 정장은 전체 인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패션 요소다. 그만큼 다리미는 의상을 더욱 시크하고, 멋지있게 만들어준다. 완벽한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다리미도 기능과 용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 따라서 즐겨 입는 의류에 따라 기능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게 좋다.

'전기 다리미'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운모판에 니켈크롬선을 감은 발열체 부분을 바닥쇠와 중추쇠 사이에 끼워 열을 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속으로 된 판을 통해 직접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의류 소재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 열판에 의한 번들거림 현상 역시 주의해야 한다. 전기 다리미는 와이셔츠, 양복지 등 한정된 소재의 옷이 많거나 옷의 각과 주름을 정확히 잡는 것을 원하는 분에게 추천한다.

'스팀 다리미'는 주부들에겐 인기 아이템이다. 따로 분무기를 뿌릴 필요가 없고, 열에 약한 재질의 옷감도 손상 없이 편하고 쉽게 다릴 수 있어서다. 일반 건식 제품에 비해 전기소비량은 많은 편이다. 그러나 고온의 스팀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름을 빠르고 쉽게 다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의류 소재에 구애 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 평소 세탁하기 힘든 침구류 등의 소독도 가능하다. 특히 아토피, 알레르기 등의 피부 질환으로 살균 효과가 필요하거나, 다양한 소재의 의류를 갖고 있다면 스팀 다리미가 유용하다.

스팀 다리미는 스팀 구멍이 많은 제품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스팀 구멍이 많을 수록 분사되는 스팀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물탱크 용량이 넉넉한지, 스팀이 한 곳에만 집중 분사되지 않고 골고루 분사되는 지도 확인한다. 또 사용 중에 물이 새지 않도록 누수 방지 기능, 자기 세척 기능, 물때 방지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 좋다.

옷에 따라 여러 번 방향을 바꿔 다림질을 하다 보면 꼬이는 선에 걸려 다리미가 넘어지기 일쑤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무선 다리미'다. 무엇보다 선이 없어 편리하다. 다만 본체에 다리미를 올려놓고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옷을 다림질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한꺼번에 많은 옷을 다릴 일이 없고, 편리하게 다림질을 하고 싶다면, 무선 다리미를 추천한다. /김민지기자 nina@

"금융권 합병 본격화"… 우리·씨티·농협 시동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NH농협증권 등 금융권 합병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씨티은행-한국씨티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농협증권의 합병을 각각 인가했다.

씨티은행은 경영 효율성을 위해 씨티금융지주를 소멸해 오는 31일까지 합병할 계획이다.

지주의 자산과 영업규모 대부분인 97%가량을 씨티은행이 차지하고 있었던 데 따른 조치다.

씨티은행의 대주주는 금융지주에서 씨티뱅크해외투자법인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른 주식취득도 함께 승인됐다.

우리은행의 효율적인 매각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도 인가됐다.

이번 합병으로 우리은행은 존속회사로 남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소멸회사로 된다.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며 이번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했다. 다만 우리FIS·우리금융연구소·우리프라이빗에퀴티 등 기타 자회사는 관계법령상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투자증권과 농협증권 간 합병도 승인됐다.

한편 이번 합병으로 농협증권은 국내 증권업계 1위의 대형 증권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박성민기자 [illegible]

KB생명, '골든라이프ELS변액' 판매

KB생명은 20일부터 미래에셋증권에서 '무배당 KB골든라이프ELS변액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 채널 확대는 KB국민은행, 삼성증권에 이어 세 번째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성과 보험의 안정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지난 4월초 첫 판매에 들어간 이 상품은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원하는 고객이 늘면서 지금까지 150억원의 판매실적을 거뒀다.

KB생명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의 제휴채널 확보를 통해 새로운 고객의 접점을 확대하고 저금리 시대를 맞아 고액 자산가들의 다양한 상품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illegible]

사이버검열 등 판교로 불똥

한국판 실리콘밸리… 각종 악재로 신음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형 인명 사고까지 터지면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어느 때보다 쓸쓸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는 경기도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해 조성한 연구개발단지다. 도 차원의 세제지원과 입주혜택, 동종업계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다음카카오, 한글과 컴퓨터,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굴지의 IT기업 200여곳이 몇 년 사이 앞다퉈 판교에 둥지를 틀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우리나라 IT발전의 산실로 군림했지만 최근 불거지는 각종 악재 속에 산업단지 조성 이래 가장 추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탄생한 제1대 흥행기업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시지 검열 논란으로 신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는 다음카카오 출범을 앞둔 지난달 금융, 쇼핑, 뉴스 유통 관련 신규 서비스를 연쇄 출시했다. 카카오톡 3500만 이용자를 등에 업고 추진된 서비스지만 울가을 탈퇴자들이 늘어나면서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급기야 카카오는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대안까지 내놓았지만 떨어진 신뢰도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감청 논란은 게임업계에도 불똥이 튀어 엔씨소프트와 넥슨은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용 통신 자료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양사는 "수사기관이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사이트는 공문 접수 확인용"이라고 반발했다.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를 알리는 포스터. 17일 열린 행사에서 환풍구 붕괴사고로 16명이 사망했다.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

사이버 검열 의혹이 IT업계를 강타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17일 개최된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환풍구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판교 테크노밸리는 충격에 빠졌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조직원 안전파악을 벌였고 우리 회사 피해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우리 직원 피해는 없었으며 판교 입주 기업 모두 분주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직후 주말이 껴서 월요일이 되어야 다른 기업의 피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재건축·재개발 봇물

입주권, 저렴하지만 세금 문제 고려해야
분양권, 위험부담 낮지만 층·향 선택 못해

부동산시장 침체로 중단됐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최근 기지개를 켜면서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을 두고 저울질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같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라도 입주권과 분양권 둘 중 어느 것을 사는지에 따라 가격, 세금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는 입주권과 분양권 2개의 경로가 있다.

먼저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후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작전 조합원이 돼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얻게 된다. 아파트가 완공된 후 사용검사를 끝내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입주권은 주택으로 바뀐다.

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남은 물량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권리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하지만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일반 수요자에게 돌아간다.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던 금융위기 이전에는 보통 분양권보다 입주권이 선호됐다.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가격이 일반분양 물량보다 저렴한 데다 원하는 층과 향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입주권보다는 분양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 들어 공급된 '서초 푸르지오 써밋',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2회차' 등은 수십 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고, 미분양 무덤으로 꼽히는 강북의 재개발 단지인 '꿈의숲 롯데캐슬', '보문파크뷰자이'도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을 정도다.

사실 사업 주체인 조합원은 사업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실적 저조 등의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한때 이 같은 리스크가 문제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여기에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차이도 수요자들이 분양권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반면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했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시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선하기자 sun1020@metroseoul.co.kr

LG 손연재 갈라쇼 개최 LG전자는 18, 19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리듬체조 갈라쇼 'LG휘센 리드믹 올스타즈 2014' 행사를 개최했다. /LG전자 제공

고속도로 기름값 '극과 극'

고속도로 휴게소 간 기름 값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6개 휴게소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의 차이는 지난 1일 기준 ℓ당 182원이었다.

가장 싼 곳은 호남선 백양사휴게소(논산방면)로 ℓ당 1736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곳은 영동선 덕평휴게소로 ℓ당 1918원이었다. 덕평휴게소에서 인천 방향으로 14km 떨어진 용인휴게소(인천방향)는 ℓ당 1760원으로 158원 쌌다. 경유 가격은 가장 싼 휴게소가 호남선 곡성휴게소로 ℓ당 1546원이었고, 가장 비싼 휴게소는 역시 덕평휴게소로 ℓ당 1689원이었다.

휘발유·경유 값이 싼 주유소 상위 20곳은 모두 도로공사가 건설해 민간업체에 임대한 방식의 알뜰주유소였다.

하지만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세금 혜택으로 시장 가격보다 ℓ당 50~100원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민자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아도 마진을 낼 수 있다.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때 시행된 이 정책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억제하는 것으로 최근 문을 닫는 주유소가 급증한 것의 주된 요인이다. 알뜰주유소와 가격을 맞추기 위해 마진을 낮추는 출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전국 등록 주유소 수는 1만2998개로 전달(1만3014개)보다 16개 감소했다. 1만3000개 이하로 떨어진 건 2008년 말 이후 처음이다. 특히 휴업주유소가 432개에 달해 주유소 휴업률이 역대 최고인 3.32%를 기록했다. 이는 알뜰주유소가 들어서기 전인 2011년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은현준기자 rohkim@

실속 갖춘 오피스텔 '마곡 아이파크' 분양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남부의 핵심 개발지역인 마곡지구에서 '마곡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선착순 분양한다. 특히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으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B8-2·3블록에 지어지는 마곡 아이파크는 지하 5층, 지상 14층, 2개동, 총 468실 중 288실이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23~26㎡ 원룸형 396실, 35~36㎡ 투룸형 72실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마곡 아이파크는 초기 3일 계약률만 50%를 넘으며 흥행을 예고한 바 있다. 지역 내 오피스텔 공급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는 먼저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와 각종 금융혜택이 꼽힌다. 마곡 아이파크는 마곡지구 브랜드 오피스텔 최초로 3.3㎡당 분양가를 700만원대로 책정했다. 또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를 실시해 자금부담을 낮췄다.

1~2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상품 설계도 호평을 얻고 있다. 마곡 아이파크는 층고를 일반 오피스텔보다 10cm 높은 2.45m로 설계했고,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을 빌트인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첨단 IT기술을 적용, 급수와 가스계량기를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게 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이 밖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별 개별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고, 태양열 발전시설을 옥상에 설치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으로 각종 가기를 제어할 수도 있다.

보안에 대한 걱정도 덜었다. 주차장 내부와 차량 출입구, 비상계단 등에 CCTV를 설치해 사각지대 없이 안전한 보안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벨 시스템을 갖춘다.

모델하우스는 강서송도병원 인근인 강서구 공항대로 336번지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일은 2016년 12월이다. 분양문의 1600-7799

/백선하기자

르포

■ 현대차 H-Art 갤러리

현대차, 문화예술에 눈뜨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안내자의 설명에 따라 이동하자 갑자기 번쩍이는 물체가 사방으로 빛을 발한다. 마치 우주 탄생의 현장을 보는 듯 원형의 물체는 광채를 번뜩이고, 관람객들은 탄성을 내지른다. 자동차 헤드램프를 이용한 최우람 작가의 'URC 1'이라는 작품이다.

이곳은 현대자동차가 주최하는 '더 브릴리언트 아트 프로젝트-드림 소사이어티' 전이 열리는 서울미술관이다. 지난 10일 개막해 오는 11월 16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현대차가 순수 예술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주최하는 문화 마케팅 활동이다. 지난해 4월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처음 진행한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된 행사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말 그대로 꿈의 사회, 이상이 적절히 구현되는 세계를 뜻한다. 안내를 맡은 대안공간 '루프'의 서진석 디렉터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를 "X 브리드"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최우람, 김기라, 이예승, 박정기, 박여주(설치 미술) ▲강영조(사진) ▲아핏차퐁 위라세타쿤(영화) ▲김진중(건축) ▲아름 챔버오케스트라(음악) ▲라블르 말부에나(미디어아트) ▲요시키즈 이마가타(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그들만의 세계를 보여준다.

박여주 작가의 '보딩 램프'라는 작품도 눈길을 끈다. 관람객들이 보딩 램프에 올라 육감적인 모델로부터 음료수를 받아 내려오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작품은 비행기라는 밀실에 갇히는 순간, 여성이 얼마나 대상화되고 물질적으로 판단되는지 보여준다.

자동차 헤드램프를 이용해 만든 최우람 작가의 URC 1(현대 현대차 H-Art 갤러리

장기적 프로젝트로 예술분야 후원
기술 넘어 자동차에 새로운 가치 부여

◆문화예술 분야에 장기적 대규모 후원

현대차그룹은 문화예술 분야에 장기적으로 대규모 후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에 10년간 120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이번 후원을 통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예술 흐름을 주도할 차세대 예술가를 양성하고 대중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문화와 산업의 이종 교류를 통해 혁신적이고 감성적 제품 개발을 위한 창의 인프라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 내재되어 있다.

정몽구 회장은 "뚜렷한 역사관을 갖고 차를 판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의 문화도 함께 파는 것"이라며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의 하드웨어를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자동차에 불어 넣겠다는 현대차의 의지가 역사, 그리고 이제는 문화 접목과 융합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는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가 결합된 이종산업 융합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역사와 문화도 동참해 혁신적이고

지배해온 현대차만의 가치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현대차가 문화에 심취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현대차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연계 되고 다. 클래식 음악 대중화를 위해 서울시 교향악단을 후원하고 있으며, 전국 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아트드림 프로젝트'도 열리고 있다. 또,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토요 아트 드라이브'와 군 장병 대상 순회 토크 콘서트도 꾸준히 마련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작가 작품을 현대차 전시장에서 전시하는 'H-art 갤러리', 현대차 브랜드를 주제로 미디어 조형물을 만드는 '브릴리언트 큐브'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은 이미 수준과 다양성에서 르노삼성을 비롯해 국내 자동차업계가 따라오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김의박기자 fame@metroseoul.co.kr

넥서스9

아이패드 에어2

애플·구글, 태블릿시장 정면 대결

아이패드에어2 vs 넥서스9 스펙 가격 비교

애플의 아이패드 에어2와 구글의 넥서스9이 태블릿PC시장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최근 애플이 자사의 차세대 아이패드 에어2를 공개하면서 하루전 공개됐던 구글의 넥서스9와 태블릿 시장에서의 본격 경쟁을 알렸다. 이번 공개된 두 태블릿은 비슷한 사이즈의 스크린 구성과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아이패드 에어2는 두께가 6.1mm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태블릿PC를 표방한다. 넥서스9의 두께는 7.9mm로 아이패드 에어2보다 2mm 가량 두껍다. 반면 무게는 아이패드 에어2가 437g으로 425g인 넥서스9보다 다소 무겁다.

또 아이패드 에어2와 넥서스9은 두 제품 모두 광시야각(IPS) LCD 패널을 장착했으며 해상도(2048X1536)도 같다. 화면 크기는 아이패드 에어2가 9.7인치로 8.9인치인 넥서스9보다 1인치가량 크다.

모바일 제품의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아이패드 에어2가 64비트 기반의 A8X를, 넥서스9도 64비트 기반의 엔비디아 테그라 K1을 탑재했다.

카메라는 아이패드 에어2와 넥서스9 모두 800만 화소(후면카메라)를 지원한다.

애플은 아이패드 에어2에 지문인식 기능을 도입한 반면 구글은 터보 충전기를 출시해 15분만 충전해도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16GB 기준 넥서스9이 아이패드 에어2보다 160 달러 저렴하다. 넥서스9은 16GB이 399 달러(약 42만원), 32GB이 479 달러(약 50만원)에 출시된다.

아이패드 에어2는 와이파이 버전 16GB 용량 모델이 499 달러(약 52만원), 64GB가 599 달러(약 64만원), 128GB가 699 달러(약 74만원)에 출시된다. /정희준기자 jnw@

3분기 분양실적, 전년대비 16% ↑

3분기 분양실적이 지난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분기 아파트 분양실적(공공임대·주상복합 포함, 국민 영구임대 제외)은 전국 104곳 5만1257가구로 나타났다. 작년 3분기 실적인 전국 86곳 4만4029가구와 비교하면 7228가구가 늘었다.

수도권은 30곳 1만8028가구가 분양됐다. 경기가 23곳 1만5712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6곳 1574가구, 인천 1곳 742가구 순이었다. 작년 3분기에 비해 사업장은 11곳, 가구수는 1497가구가 줄었다. 총 30곳 중 7곳이 1순위에서 마감됐으며, 3순위 마감 13곳, 미달은 10곳이었다. 1순위 마감 단지가 나온 지역은 경기 5곳, 서울 2곳이다.

서울은 6곳 모두 순위 내 마감을 기록하며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인기지역인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물량은 2곳 모두 1순위 마감됐으며, 강북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3곳도 3순위 마감됐다.

경기는 위례신도시(하남시 2곳, 성남시 1곳)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며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갔다. 이 중 '위례신도시 산안인스빌 아스트로'에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인 총 1만2134명이 몰렸다. 그러나 경기에서 분양한 총 23곳 중 9곳은 미달되면서 인기지역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지방은 74곳 3만3229가구 분양됐다. 부산이 12곳 7654가구로 가장 많았다. 경북 6곳 3867가구, 충남 6곳 3792가구, 경남 7곳 3407가구, 광주 7곳 2627가구, 대구 6곳 2274가구, 세종 4곳 2152가구, 전북 9곳 2069가구, 충북 5곳 2044가구, 강원 3곳 1714가구, 전남 3곳 969가구, 대전 5곳 620가구, 제주 1곳 40가구 순이다. 작년 3분기에 비해 사업장은 29곳, 가구수는 8725가구 늘었다.

총 74곳 중 16곳이 1순위 마감됐으며, 3순위 마감 20곳, 미달 38곳이었다. 1순위 마감 단지가 나온 지역은 대구와 광주가 각각 4곳, 부산 3곳, 세종 2곳, 경남 1곳, 경북 1곳, 충남 1곳이다.

대구는 6곳 중 4곳이 1순위 마감되며 3분기에도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다. 수성구 범어동에서 분양한 '브라운스톤 범어'에는 총 1만7603명이 몰리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를 기록했다.

광주도 7곳 중 4곳이 1순위 마감되고 1곳이 3순위 마감되는 등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 부산은 12곳 중 3곳이 1순위 마감됐지만 미달도 6곳이 나오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은 4곳 중 2곳이 1순위 마감됐고 1곳이 3순위 마감됐다. 세종은 최근까지 한동안 약세를 보였지만 9월 이후 입지가 양호한 2-2생활권 분양이 시작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고 있다. /김두희기자 kim@

• BMW X3 & X4

'팔색조'의 매력 뽐내다

세단보다 넓은 공간 활용성·연비 우월
주중 출퇴근용, 주말 레저용 쓰임새 커

BMW는 세단과 크기 가격면에서 차이가 없는 X3, X4 두 차종을 출시했다.

▲한 줄 평가: 공격하거나 효율적인 엔진이 돋보인다. ▲평점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세단에만 관심 있던 이들이 다른 차종으로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대 수혜차종은 SUV다. 크기 면에서 세단과 별 차이가 없고 가격 또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BMW X3와 X4가 바로 그런 경우다. 두 모델은 지난 8월 함께 선보였다. X3는 2011년 출시된 2세대 X3의 부분변경 모델이고, X4는 X3를 기본으로 만든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SAC)다. X5를 베이스로 탄생한 X6와 같은 케이스다.

X3와 X4는 파워트레인을 비롯해 전반적인 제품 구성이 비슷하지만, 차체 높이와 길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휠베이스는 두 차 모두 2810mm로 같고, 차체 길이는 X4가 14mm 긴 반면 높이는 54mm나 낮아졌다. 앞모습은 범퍼 외에는 구분하기 힘들지만 뒷모습은 확연히 구분된다. 뒤로 갈수록 완만히 낮아지는 X4의 뒷부분은 X6를 떠올리게 한다.

X3와 비교할 때 X4의 시트 포지션은 앞좌석이 20mm, 뒷좌석은 28mm 낮다. 낮아진 시트 위치의 효과는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두드러진다. 아우디 SQ5, 포르쉐 마칸과 같은 차체 높이(1624mm) 역시 민첩한 핸들링을 돕는다.

엔진 라인업은 X3와 X4 보두 2.0ℓ(190마력), 3.0ℓ(258마력) 등 2종류가 마련된다. 기본적으로 두 엔진은 파워 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두 차를 번갈아 타본 이번 시승에서 눈길을 끈 건 X4 30d였다. 57.1kg·m의 최대토크는 1500~3000rpm 구간에서 시원하게 뿜어내고, 8단 자동변속기는 파워의 손실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최대토크가 마칸 S 디젤이나 SQ5보다 약간 낮지만 대신 경쟁차보다 공차중량이 가벼워 이를 충분히 상쇄한다.

다이내믹 댐퍼 컨트롤은 X3와 X4의 돋보이는 특장 중 하나다. 버튼 하나로 간단히 조작할 수 있은 컴포트, 노멀과 스포츠, 스포츠+, 에코 등 각 모드별 차이가 뚜렷하다. 이번 시승에서는 여러 모드를 골고루 선택해 봤는데, 에코 모드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렸을 때 연비는 17.8km/ℓ를 나타냈다. X4의 차체 크기를 감안할 때 매우 훌륭한 연비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변속이 빨라지고 서스펜션이 단단해져 고속에서 속도를 높여도 마음이 놓인다. 서스펜션의 완성도만 보면 BMW X4와 아우디 SQ5가 막상막하이고, 포르쉐 마칸 S 디젤은 약간 떨어진다.

X3와 X4의 차이 중 하나는 트렁크 활용도다. X3는 기본 550ℓ이고 최대 1600ℓ까지 넓힐 수 있는 반면, X4는 500ℓ 용량을 최대 1400ℓ까지 확장할 수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차 모두 레저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BMW의 4륜구동 시스템은 앞뒤 구동력을 100:0~0:100으로 수시로 바꾸면서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몰아줄 수 있다. 반면 아우디 SQ5와 포르쉐 마칸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 전자식 시스템을 쓰는 BMW와 기계식을 쓰는 경쟁사의 차이점 때문인데, 각기 장단점은 있다. 오프로드보다 시가지를 주로 다니는 이들에게는 BMW의 시스템이 연비 면에서 더 만족스러울 것이다.

BMW X4 30d M 스포츠 패키지는 8690만원이고, 같은 사양의 X3 30d M 스포츠 에디션은 8390만원이다. 라인업에서 가장 저렴한 X3 20d는 6690만원이고, 같은 사양의 X4 20d는 7020만원이다. 포르쉐 마칸 S 디젤(8240만원)의 경우 옵션을 더하면 1억원이 훌쩍 넘어가는 데 비하면 X4의 가격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인다. 아우디 SQ5는 마칸 S 디젤보다 강력한 엔진을 얹었으면서도 8690만원의 가격표를 달고 있다. 따라서 가격과 성능을 고려할 때 X4의 가장 큰 라이벌은 아우디 Q5와 SQ5가 될 것이다.

X3와 X4는 세단보다 넓은 공간 활용성을 지닌 데다 연비가 웬만한 세단보다 낫다. 주중에는 출퇴근용으로 쓰다가 주말에는 레저용으로 쓸 수 있는 '팔색조'의 매력을 지닌 차다. /lamuri@metroseoul.co.kr

쉐보레 'RV 패밀리 오토캠핑'

쉐보레가 캠핑 시즌을 맞아 18~19일 경기도 양평 관광농원 오토캠핑장에서 '쉐보레 RV 패밀리 오토캠핑'을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100가족 400여 명을 초청, 쉐보레 그리고 캠핑 이야기'를 주제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블랙이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캠핑 문화를 선보였다.

특히 새로운 캠핑 트렌드인 글램핑과 루프톱 텐트 캠핑을 함께 마련했다. 또 쉐보레 트랙스와 올란도, 캡티바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아웃도어 장비를 전시, 캠핑 마니아의 호응을 얻었다.

참가 고객들은 1박 2일간 캠핑 전문가의 캠핑 강의 등 가족과 캠핑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과 맨손 송어잡기, 바비큐 파티와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체험을 하며 가을 정취를 즐겼다.

18~19일 경기도 양평 관광농원 오토캠핑장에서 개최된 쉐보레 RV 패밀리 오토캠핑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쉐보레 RV 차량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의택기자

<국산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엑센트		620	560	1,070	1,150
	i30	630	610	900	1,520	1,790
	아반떼MD		1,130	1,200	1,270	1,430
	i40			2,030	2,080	2,200
	싼타페 CM	1,630	1,730	1,800	1,950	
기아	프라이드	590	720	785	1,220	
	뉴카렌스	630	820	1,080	1,200	1,300
	카니발 R		1,870	2,050	2,380	2,480
쉐보레	크루즈		600	1,250	1,370	1,530
	올란도			1,480	1,580	1,870
쌍용	코리스모			[illegible]	1,590	2,55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현대차, 고난도 정비전담 센터 오픈

현대자동차는 상용차 고난도 정비를 전담하는 '상용 하이테크(HI-TECH) 센터'를 개소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는 첨단 전자장비가 적용된 대형 상용차의 고난도 정비를 위해 대구 성서공단 내에 상용 하이테크 센터를 개소하고 3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향후 상용 하이테크 센터를 전국 각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거 난도가 높은 정비의 경우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소재한 본사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현대 상용차 고객들이 좀 더 신속하고 높은 품질의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상용 하이테크 센터는 자동차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 인재로 구성된 본사 정비요원들이 상주해 최고 수준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며, 25.5톤 덤프트럭, 25톤 카고트럭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국내 최대 용량의 리프트가 설치돼 정비 편의성은 극대화됐다.

또한 전국으로 상시 출동태세를 갖춰 각지에서 발생하는 고난도 정비 요구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상용차에 특화된 대형 상용 전용 서비스 협력업체(블루핸즈) 72개소를 향후 2020년까지 100여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중형 상용차 위주의 일반 블루핸즈 140여개소를 포함하면 명실공히 국내 최대 상용차 정비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 ▲신주 ▲서평택 ▲여주 등지에 최첨단 장비는 물론, 고객이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게 쉼터를 갖춘 신규 정비거점을 개장해 상용차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들의 요구에 보답하고 고난도 정비의 어려웠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용차 하이테크 센터를 개소했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인프라 구축, 합리적인 부품 가격,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 등 상용차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3월 고급 대형 트럭인 '트라고 엑시언트'를 출시하면서 동력계통의 보증수리 기간을 국내 최고인 '3년/주행거리 무제한'으로 운영해 상용차 고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임의택기자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개혁 앞장 서라

정론탁설

유 병 철
<언론인>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3대개혁이 순탄치 않은 가운데 특히 공무원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도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나 공무원 연금개혁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벽에 부딪쳐 있다. 사실 공무원연금개혁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 됐으나 성공하지 못해 지리멸렬 상태다.

이 바람에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할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중이다. 올해에만 2조4854억 원을 재정에서 메워줘야 하고 오는 2017년에는 4조원에 이어 2018년에는 5조원의 공무원연금 적자가 예상된다. 더욱이 일반 국민연금과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 비판대에 올라온 지 오래된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태도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마저 "표가 떨어진다"며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주도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개혁다운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은 '제 밥 그릇'을 덜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정부주도로 개혁을 추진할 경우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의 정치적 뒷받침 없이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유권자를 의식한다고 하나 전체 공무원이 무작정 반대하는 것만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가 실시한 연금개혁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전체의 43.8%가 '적정수준 축소', 28.5%가 '대폭축소' 19.8%가 '소폭축소'를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대다수 국민이 어떤 수준이든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규모를 줄이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금 소득불평등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중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노인의 복지수준이 베트남이나 중국보다 낮아 세계 50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나왔다. 더욱이 국민연금 수혜자는 3명 중 1명도 안 되는 32%에 불과하며 노인 빈곤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1%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판에 공무원의 표를 의식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경우 집권 여당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뒤따를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도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포토프리즘 · 도심속의 음악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걷고 싶은거리에서 한 밴드가 길거리 공연을 하고 있다. 생각보다 쌀쌀하지 않은 날씨에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좋은 음악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다.

/손진영기자 son@

LH는 민영화가 답이다

뉴스룸에서

김 두 탁
<정치산업부 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9조83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기관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LH로 무려 142조3312억원을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정감사를 통해 "나랏이 무분별하게 추진한 대형 정책사업 때문에 엄청난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공무원을 비롯해 책임지는 관련자가 하나도 없다"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단순히 쌓여가는 부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공기업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바로 공기업들의 '모럴 해저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 LH 본사에서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LH 자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LH 자회사들은 사업이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도 수십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기관장은 LH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자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자회사가 진행하는 PF사업 11개 중 8개가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들 8개 자회사의 누적 적자는 1조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이럼에도 8개 자회사 중 7곳이 2006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성과금으로 61억원을 지급했다. 누적 적자가 1676억원에 달하는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사업은 지금까지 19억7800억원을 성과급으로 나눠줬고, 적자액이 4517억원이나 되는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은 18억76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처럼 PF 사업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데 LH 출신 퇴직자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PF 사업 장이 자회사에 재취업했다.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자산관리 의 박모 대표는 LH 이사 출신이다.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의 대표도 LH 이사 출신이며, '남양주 별내 메가볼시티 자산관리' 대표는 LH 본부장 출신이다.

공기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무엇보다 윤리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철밥통으로 불리고 있는 공무원보다 '모럴 해저드'가 심각해도 과도한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현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LH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대한 이러한 씁쓸한 현실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민영화만이 답이 될 것이다.

최소한의 책임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A군은 강남의 술집에서 근무 중이다. 소위 일류대학의 인문계열에 재학 중이고, 군 제대 후 등록금 마련을 위해 웨이터를 시작했다. 술 취한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게 고단했지만, 고정 급여만큼이나 쥐어지는 팁에 재미를 붙였다. 몇 개월 일하면 1년치 등록금과 교재비, 최소한의 용돈은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에 열심히 일했다. 4개월 만에 목표했던 돈을 만졌고, 학기 시작이 남아서 2개월 더 하기로 했다. 2년 만에 웨이터 5명을 거느린 상무가 됐다. 월수입은 시작 때보다 5배에 달했다.

B군은 도통 학업에 취미가 없었다. 학교 옆에서 빈둥다 PC방으로 놀이터 삼아 세월을 보냈다. PC방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발렛 주차를 알게 됐다. 아르바이트 삼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인근 가게 6개의 발렛 서비스를 도맡았다. 가게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받았고 고객에게는 2000원의 요금을 수령했다. 1년 만에 직원 두 명을 둔 발렛 전문서비스 사업자가 됐다. 부모님께 등록금을 받는 대신 가끔 외식을 시켜드리거나 용돈을 드리기도 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에 관한 지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은퇴 직원 자녀에 대한 취업 특혜는 물론 산하기관이나 지역 조합에 취직시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다. 소위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행위였다. 고위 공무원 혹은 은퇴자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채용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보직 발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었다. 어느 기자의 표현대로 부모가 스펙인 셈이다.

사회는 청년들에게 성실하게 공부를 하거나 신념을 갖고 꿈을 만들어 가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가르치는 중이다. 돈을 잘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는 않고 막 벌고 막 쓸 수 있는 길을 일러 준다. A군의 꿈은 300평 이상 규모의 술집을 내는 것이다. 그는 지금 도박 빚만 잔뜩 지고 있다. B군은 발렛서비스 가게를 100개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와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기꺼이 감수한다는 생각이다. 현대판 음서제로 취업한 이들은 두려운 게 없다. 선배든 상사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심지어 자기보다 아래 사람이라고 여기기까지 한다. 든든한 부모 덕분이다.

훌륭한 어른은 못 되도 부끄러운 어른으로 살지는 말아야겠다. 그게 한 인간으로 숨 쉬는 다음 세상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이 아닐까 싶다.

/(주)작선출판사(www.jfx.co.kr) 대표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떴다방'

기자수첩

박 선 옥
<경제산업부 기자>

"1년(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왜 기다리세요? 당첨되면 바로 팔아드릴 테니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부동산시장 침체로 한동안 잠잠했던 이동식 중개업소, 일명 '떴다방'들이 활개치고 있다. 최근 가장 핫하다는 위례신도시는 물론이고, "이곳에 웃돈이 붙겠어?" 싶은 외진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마저 이들의 먹잇감이다.

건설사들은 이러한 떴다방들의 귀환이 은근히 반가운 눈치다. 떴다방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말은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지나고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사업장이 매력적일수록 더 많은 떴다방이 모인다는 점에서 일부 업계들은 분양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는 보도자료에 "우리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까지 등장했다"며 자랑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떴다방들의 개입으로 분양시장의 훈풍이 과열양상으로 번져가는 지금, 마냥 이들을 반가워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떴다방은 실거주 의사가 없는 당첨자의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려는 매수자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활개를 칠수록 분양시장에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들만 모이게 된다. 한 몫 챙기려는 사람들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실수요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부동산시장 회복의 장애라는 이유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단속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너무 만연해 있어 정상처럼 보이지만 실은 비정상인 떴다방.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맛있는 원샷

매주 **수요일** 밤 11시

"고양이상은 눈매 강조해야"

얼굴상에 따른 화장법

일반적으로 여성의 얼굴은 크게 강아지상과 고양이상으로 구분된다. 강아지상은 선한 눈매와 동그란 콧망울이 특징이며, 고양이상은 날렵한 턱선과 위로 올라간 눈매를 가진 이들이 많다. 애경 루나 관계자는 "얼굴상에 따라 매력 포인트 또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화장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눈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가장 신경써서 화장을 해야 한다.

강아지처럼 순한 얼굴에 두껍고 진한 아이라인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마련이다. 큰 눈망울과 처진 눈꼬리가 특징인 강아지상 눈매는 브라운 톤의 섀도를 사용한다. 먼저 펜슬타입의 섀도로 연한 베이지 컬러를 펴 바르고 짙은 브라운 컬러를 아이라인을 따라 짙게 빼주면 선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

살짝 위로 올라간 눈매를 가진 고양이 상의 경우 아이라인을 살짝 위로 올려 섹시한 느낌을 강조한 캣츠아이 메이크업이 잘 어울린다. 섬세한 터치가 가능한 붓펜 타입의 아이라이너는 더욱 또렷한 눈매를 연출해준다.

블러셔와 쉐딩으로는 밋밋한 얼굴에 입체감을 부여한다.

둥근형의 강아지상은 블러셔를 이용해 생기를 부여, 청순미를 배가시키는 것이 좋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가늘한 턱선은 고양이상이 가진 큰 매력 포인트이지만, 자칫 날카롭고 도도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때 코와 턱 라인에 쉐딩을 발라 V라인을 살려주면 한결 부드럽고 세련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 /서제용기자

'환절기 카디건·재킷 잘팔려'

기온 오르는 한낮에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어

올해는 예년보다 짧아진 환절기 덕분에 카디건과 재킷이 패션업계 효자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남성 캐주얼 브랜드 시리즈의 박기수 디자인 실장은 "9월 중순부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업계들도 환절기 아이템을 일찌감치 선보였다"며 "특히 올 10월과 11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환절기 아이템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신축성이 좋은 스웨터나 저지 재킷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시리즈에서는 카디건·저지 재킷·아우터형 셔츠 등 환절기 아이템이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0% 정도 많이 팔렸다.

이같은 현상은 여성복에서도 마찬가지다.

커스텀멜로우의 여성 라인 센터에서는 번개형 자카드 니트 풀오버가 인기다. 이번 가을 겨울 시즌 콘셉트인 번개 프린트가 새겨진 니트로 베이직한 실루엣과 세련된 컬러감으로 스커트·팬츠에 두루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옐로 부분에 쪽지로 캐쥬얼한 감각을 더했다.

럭키슈에뜨 로스 블룸 재킷은 시크한 블랙 로즈 자수로 포인트를 준 오버사이즈 야상 점퍼로, 환절기 아우터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핏 앤 플레어 실루엣으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했으며 스트링으로 허리 스트링으로 핏 조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기온이 오르는 한낮에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가벼운 야상 재킷이나 니트형 카디건이 각광을 받는다"며 "이너로 셔츠나 니트를 매치하면 감각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sss@metroseoul.co.kr

CJ올리브영 '할러윈 스타일 업' 이벤트 헬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이 19일 할러윈 파티에 필요한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CJ올리브영은 26일까지 '할러윈 파티 스타일업' 이벤트를 벌이고, 이 기간 매장을 방문하는 전 고객에게 할러윈 스타일업 카드를 증정한다. 카드 소지자는 26일까지 2만원 이상 구매 시 1000원 할인 혜택을 무제한 받을 수 있다. /CJ올리브영 제공

각질, 피부 질환 신호?

평소 보습관리 필요··· 심하면 진료받도록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특히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를 해도 각질이 심하다면 이는 다른 피부 질환이 동반됐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각질은 ▲피부 보호 ▲수분 유지 ▲경피 흡수 등의 기능을 한다. 자연스럽게 탈락과 생성이 반복돼 반드시 인위적인 제거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피부 건조가 심하거나 피부염과 곰팡이 감염 등으로 인해 각질 산화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각질이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해진다.

또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주사와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각질이 눈에 보일 수 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은 요즘 같은 환절기에 더욱 악화된다.

따라서 보습 제품을 활용해 피부의 유·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만약 각질로 인해 가려움증과 안면 홍조 등이 생기면 적극적인 피부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김방순 에스앤유 김방순 피부과 원장은 "각질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피부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피부가 건조한 상태라면 보습관리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지만 다른 피부염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평소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습관을 최소화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각 병원을 찾아야 각종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하기자 hoedl38@

'템퍼 침대용 등받이' 인기

살랑이는 바람에 길가의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는 책 읽기 더 없이 좋은 계절 가을이다. 서점에서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다양한 기획전을 펼치고 있고 거리에는 책을 중심으로 한 이색축제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책 읽기 좋은 계절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바로 책을 읽을 때 발생 가능한 통증이다.

책을 읽을 때 바른 자세로 책을 읽지 않으면 목이나 척추 허리 등에 통증이 발생하기 쉽다. 이런 계절에 좋은 아이템으로 '템퍼 침대용 등받이' 제품이 책 애호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프리미엄 매트리스·베개 브랜드 템퍼에서 출시한 템퍼 침대용 등받이는 등이 받는 압력을 경감하고 척추의 굴곡에 따라 형상화돼 허리를 완벽하게 지지해줘 장시간 침대나 의자에 앉아 독서를 할 때 신체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최상의 아이템이다.

템퍼는 미항공우주국 나사(NASA)가 우주선 이착륙 때 발생하는 가속력과 압력으로부터 우주비행사의 척추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점탄성(Visco-elastic)소재를 매트리스에 적용했다. 체온과 무게에 반응해 개인의 체형에 맞게 융합되는 이 소재는 근육과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한다.

/서승범기자 press@

MBC '불만제로UP' 스타 마케팅 척추관절병원 실태 고발

치료는 어디로?

지난 8일 '척추관절병원의 두 얼굴'이란 주제로 방송된 MBC '불만제로 UP'(이하 불만제로)에서는 일부 척추전문병원들의 실태가 낱낱이 공개돼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날 불만제로에서는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을 광고모델로 쓰는 척추관절병원의 신경성형술의 실체와 실험군을 통한 무리한 수술의 후유증을 소개했다. 또 방송은 허리 통증을 앓고 있거나 디스크 진단을 받은 이들을 찾아가 척추관절병원의 불편한 진실을 피력했다.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부작용 없이 완치 혹은 완쾌가 가능하다는 병원들의 설명에 따라 시술에 응한 환자들은 현재 후유증으로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환자 맞춤형 시술이 아닌 과도한 마케팅 광고 비용을 충원하기 위해 가격이 비싸고 무리한 시술 방식이 행해져 환자의 후유증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디스크 증기에 약간의 통증 증상은 간단한 신경치료와 약물치료, 운동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스타들을 내세우는 병원들은 값비싼 신경 성형술과 꼬리뼈 레이저 내시경 치료술, 고주파 열 치료술 등 가격이 비싼 치료를 권유하고 있다. 전문 의사들의 상업적인 횡포에 환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의사가 가져야 하는 윤리와 양심, 직업 역시 옛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사실 척추는 민감한 부위고 수술 후 합병증과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제대로 된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양심적이고 정직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 경험이 풍부한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과잉 진료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권하는 병원을 가야 한다.

본 기자가 관련업계를 수소문해 찾은 병원 중에는 스타들을 상업적인 광고모델로 쓰지 않고 수많은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서 유명세를 얻은 병원이 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Mnet '댄싱9 시즌2'의 지정 병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강남조이스병원이다. 이 병원은 1대 1 전담 의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가수 강종국과 휘성, 배우 손계상과 방송인 지석진 등이 입소문을 듣고 병원을 나온 뒤 치료를 받았다.

또 환자의 치료의 회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양심과 정직을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서 전문의와 도수·운동·물리치료사 4명이 환자 1명을 전담하는 1대 4 맞춤 시스템도 갖췄다. 특히 무리한 수술보다는 비수술 치료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강남조이스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다. 척추전문병원 중 거의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꼬리뼈 신경 성형술 대신 국민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신경치료술을 통해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으며 대학병원 교수 출신으로 의료진을 구성했다.

게다가 강남조이스병원이 자랑하는 고주파 특수내시경 시술은 부작용이 많은 고주파 수핵 감압술 또는 열치료보다 진화된 치료법이다. 직경이 가는 특수 내시경을 통해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면서 고주파로 디스크를 제자리에 수축 응고시키는 치료로 부작용과 후유증이 거의 없다. 병원을 찾은 1만여명 이상의 환자의 만족도 역시 95%가 넘는다.

조성대(사진) 강남조이스병원 원장은 "연예인과 스타들을 광고로 쓰면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환자들을 기만하는 병원들로 인해 의사의 믿음과 신뢰가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디스크 치료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병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술 전에는 질환이나 나이, 증상에 따라 개별적인 상담을 받아 최고의 결과를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675-2200, 휴대점 02)336-2200, 여의도점 02)786-2200, 강서점 02)2698-2200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인사동 사랑봉사단,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46주년 창립 기념일 맞아 방배동 성귀마을에

'인사동 사랑봉사단'을 발족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이 46주년 창립 기념일(10월 15일)을 맞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회사는 따뜻한 한파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독거 노인과 동네 주민에게 연탄 8000여장을 지원했다. 사랑봉사단 소속 직원 20명은 연탄 2000장을 직접 배달했다.

아울러 사랑봉사단은 최근 영등포 쪽방 상담소를 방문해 '마데카솔케어연고' 등 총 11종의 의약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동국제약 한 직원은 "봉사활동을 통해 잠시나마 어려운 이웃들을 돕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46년 동안 국민들에게 받아 온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회사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사랑봉사단은 지난 5월 더욱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조직됐으며 회사는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재용기자

김승철 교수, 우수 논문상 수상

산부인과 학술대회서 연구 성과 인정 받아

김승철(사진)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최근 열린 '제100차 대한산부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병원은 학회의 영문학술지인 'Obstet Gynecol Sci'에 지난 1년간 게재된 논문 중 김 교수의 논문이 학술적 성과와 임상적 의미를 인정 받아 우수 논문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상한 논문은 'Clinical efficacy of serum human epididymis protein 4 as a diagnostic biomarker of ovarian cancer: A pilot study'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HE-4 단백질이 난소암 진단의 새로운 표지자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난소암 환자와 난소 양성낭종 환자의 혈중 HE-4 단백 농도를 다른 조건을 통제하면서 비교한 결과 난소암 환자군에서 그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진단 정확도가 기존 CA 125에 비해 비슷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 교수는 자궁·난소암 등 부인종양 전문가로 활발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논문 발표로 국내외 학회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황재용기자

자생한방병원, 21일 '꼿꼿한 척추관절 교실' 열어

자생한방병원이 21일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정기 건강강좌 '꼿꼿한 척추관절 교실'을 개최한다.

정유파 자생한방병원 한의사가 강연을 진행해 무릎 건강을 해치고 있는 생활습관과 관절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을 소개한다.

또 관절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운동법에 대한 정보도 전달된다.

척추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퍼포먼스 보여드릴게요"

데뷔 5주년 기념 앨범 '타임' 발표한 그룹 비스트

타이틀곡 '12시 30분' 장르 발라드… 파워풀한 몸짓은 그대로
노래·연기·예능·뮤지컬… 개인·그룹 활동 모두 놓칠 수 없어

데뷔 5주년을 맞이한 그룹 비스트가 스페셜 미니앨범 7집 '타임'을 발표했다. 타이틀 '12시 30분'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두 남녀를 시침과 분침으로 묘사해 이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발라드 곡이다.

한 해에 앨범을 두 장 발매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에 멤버 윤두준은 "팬들에게 보답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5주년 기념으로 발매하는 앨범인 만큼 이번 활동으로 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 비스트하면 무대 위 강렬한 퍼포먼스가 떠오르는데 타이틀곡 '12시 30분'은 발라드라 의외다

"지난 앨범인 '굿바이 때 파워풀한 음악을 바탕으로 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힘을 빼보자는 생각으로 작업했다. 계절도 계절이니만큼 감성에 집중한 조용한 노래를 만들게 됐다. 하지만 무대를 보면 알겠지만 평범한 발라드는 아니다." (용준형)

◆ 평범한 발라드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2시 30분'이 발라드로 딱 잘라 분류되기에는 레드미컬한 요소가 있다. 편곡도 일렉트로닉과 덥스텝 소스를 가미해 신선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리듬과 비트 자체가 춤추기에 충분해 발라드 곡이지만 무대 위에서는 색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용준형)

"예상치 못한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팬들은 우리가 발라드 곡으로 컴백한다고 하니 무대 연출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해 했다. 힌트를 드리자면 미국에서 건너온 안무를 열심히 연습 중이다. 군무도 있다. 이런 노래에 이렇게 퍼포먼스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양요섭)

◆ '12시 30분'은 어긋난 남녀를 시침과 분침에 비유한 노래다.

"사실 12시 30분은 시침과 분침이 정확히 일직선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준형이에게 6시 0분으로 하자고 제안도 해봤다." (양요섭)

"저도 알고 있다(웃음). 하지만 밤 12시 30분이 고요하고 기분도 가라앉는 시간인 것 같다. 그 시간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정했다." (용준형)

◆ 용준형은 작곡가 김태주와 함께 '굿 라이프'라는 프로듀싱 그룹을 결성했다

"용준형 김태주가 하나의 팀으로 보여지길 바랐다. 태주와 작업할 때는 서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한 명이 산으로 가면 잡아주고 다른 한 명이 너무 과도하게 파고들면 그것도 아니라고 말해준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작업한다. 누가 더 많이 하고 덜 하는 게 아니라 딱 절반씩 생각이 들어간다." (용준형)

◆ 이번 앨범 6번 트랙 '쇼 핫'은 이기광이 참여했다. 멤버들이 다 자작곡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니다. '쇼 핫'은 파우리 느낌으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누구나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 힙합 장르의 노래다." (이기광)

◆ 멤버들 각자 개인활동도 활발한데 그룹활동과 균형을 맞추는 비결이 있나

"언제나 1순위는 그룹활동이다. 그 무엇보다 비스트가 먼저다. 그룹으로서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어리니까 많은 걸 할 수 있을 때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한 2~3년 전에 개인활동에 집중하던 시기가 있었다." (윤두준)

"물론 개인 활동을 등한시 하지는 않는다. 어느 한 곳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각자 개인 활동할 땐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개인 활동이 그룹의 본질이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섯 명 각자의 캐릭터가 (개인활동을 통해) 확실해지면 그룹으로 뭉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한다." (장현승)

◆ 데뷔 5년차면 아이돌로서는 중견그룹에 속한다. 위기가 찾아올 법도 한 시기다

"아이돌 5년은 위기라는 말도 있다. 그런 말을 떠올리며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기보다는 아예 생각조차 안하고 지내니 잘 흘러가는 것 같다. 딱히 비결은 없다. 멤버들끼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고 할 말 있을 때 하고 지내니 (팀워크가) 잘 유지되는 것 같다." (용준형)

◆ 지난 5년을 돌아보면 기분이 어떠한가

"첫 번 카메라에 큐를 줬다. 데뷔했을 때 흰색 무대 의상을 입고 올랐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첫 1위 했을 때도 기억나고. 당시엔 데뷔가 끝이 아니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하다." (손동운)

/정지은기자 fanatum@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tvN 월화드라마
라이어게임
극한심리추적극
끝없는 배신과 반전,
그러나 필승법은 있다!
오늘 밤 11시 tvN 첫 방송 | 매주 {월,화} 밤 11시 방송
이상윤 신성록 김소은
tvN

제니퍼 로렌스 한국 온다

'헝거게임' 월드투어 11월 4일 확정

할리우드 스타 제니퍼 로렌스(사진)가 영화 '헝거게임: 모킹제이' 월드 투어로 다음달 4일 내한을 확정했다.

수입사 누리픽쳐스는 19일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을 비롯해 '헝거게임: 모킹제이'의 주역들인 제니퍼 로렌스·조쉬 허처슨·리암 헴스워스·샘 클라플린, 프로듀서 니나 제이콥슨·존 킬릭이 11월 1일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서울·런던·뉴욕·LA를 잇는 월드 투어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투어 일정의 두 번째 방문 국가로 다음달 4일 내한 계획을 확정했다. '헝거게임' 시리즈를 비롯해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아메리칸 허슬' 등의 작품으로 톱스타 자리에 오른 제니퍼 로렌스의 첫 내한인 만큼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헝거게임: 모킹제이'는 혁명의 상징인 모킹제이가 된 캣니스(제니퍼 로렌스)가 절대권력인 캐피톨에 맞서 정면승부를 준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다. 다음달 20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정성호기자

자존심 지킨 로맨틱 코미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2주 연속 흥행 1위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사진)가 개봉 2주차 주말에도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19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18일 토요일 하루 동안 16만6322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켰다. 누적 관객수는 129만을 넘어섰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이명세 감독이 연출하고 박중훈과 고 최진실이 주연한 1990년도 작품을 리메이크했다. 조정석·신민아가 주연을 맡았다. 지난 8일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로맨틱 코미디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은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 밀려 2위에 머물고 있다. 18일 하루 동안 11만1525명의 관객을 모았으며 누적 관객수는 88만6415명이다.

한편 '제보자'는 누적 관객수 149만을 넘어서며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슬로우 비디오'는 전국 112만 관객을 모으며 8위를 차지했다. 개봉 2개월이 넘은 '비긴 어게인'도 337만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0위권 내에 머물고 있다.

/정성호기자

허상만 좇는 현대인의 이면

세련된 연출의 스릴러·배우들의 열연

film review
/장병호기자 (…)

■나를 찾아줘

데이빗 린치의 '블루 벨벳', 팀 버튼의 '가위손', 리처드 켈리의 '도니 다코', 샘 멘데스의 '레볼루셔너리 로드'는 장르도 감독의 색깔도 제각각인 작품들이다. 그러나 이들 영화에는 미국 중산층의 삶이 지닌 허상을 다루고 있다는 유사점이 있다. 이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교외 지역의 평화로운 주택가는 겉과 속이 다른 미국적인 삶의 표상과도 같다.

데이빗 핀처 감독의 신작 '나를 찾아줘'의 첫 장면 또한 교외 지역의 근사한 집의 풍경이다. 아침 일찍 일어난 주인공 닉(벤 애플렉)이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을 담은 오프닝은 중산층의 삶이 지닌 평온함을 잘 보여준다. '나를 찾아줘'는 이 평온한 중산층의 삶 뒤에 감춰진 균열과 불안을 그리는 영화다.

영화의 출발점은 스릴러다. 특별한 일 없는 삶을 살아가던 닉은 결혼 5주년이 되던 날 아내 에이미(로자먼드 파이크)의 갑작스런 실종으로 충격에 빠진다. 실종된 아내의 남편으로 여겨진 닉은 그러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단서들을 통해 아내를 살해한 유일한 용의자로 몰린다. 영화는 에이미의 실종을 기점으로 현재의 이야기를 전하는 닉의 시점과 과거의 이야기를 전하는 에이미의 시점을 교차시키는 흥미로운 전개로 관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세븐' '파이트 클럽' '패닉룸' 등 스릴러에서 뛰어난 장르 세공술을 보여준 데이빗 핀처 감독은 '나를 찾아줘'에서도 변함없이 세련된 연출을 보여준다. 많은 스릴러 영화가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 긴장감을 급격히 상실하는 것과 달리 '나를 찾아줘'는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중반부 이후에도 긴장감을 좀처럼 놓지 않는다. 닉을 연기하는 벤 애플렉의 신경쇠약에 빠질 것 같은 열연,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로자먼드 파이크의 연기, '소셜 네트워크'부터 데이빗 핀처 감독과 함께하고 있는 뮤지션 트렌트 레즈너와 애티커스 로스의 음악도 영화를 더욱 긴장감 넘치게 만든다.

스릴러로 시작한 영화는 어느 순간 현대 사회의 단면을 파헤치는 섬세한 드라마로 변신한다. 완벽하게 보였던 닉과 에이미의 관계의 실체, 그리고 에이미의 실종 사건을 자극적으로 취재해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 등은 평온함을 가장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스릴러로만 영화를 바라본다면 결말에 등장하는 닉의 선택이 좀처럼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상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한 모습이라고 본다면 그 선택 또한 서늘한 공감으로 다가갈 것이다. 청소년 관람불가. 10월23일 개봉.

'웨스턴 리벤지' 10월 30일 개봉

정통 서부영화 정취 담아

서부영화는 세월을 뛰어넘어 한결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르다. 오는 30일 개봉을 앞둔 영화 '웨스턴 리벤지'(사진)는 오랜만에 만나는 정통 서부극이다. 연기파 배우인 매즈 미켈슨과 '음상가들' '300: 제국의 부활'의 에바 그린이 주연을 맡았다.

'웨스턴 리벤지'는 잔혹한 범죄의 희생양이 된 아내와 아들의 복수를 시작하는 존과 남편과 자유를 잃은 매들린, 존에 의해 동생을 잃은 델라루 세 사람이 서로를 쫓고 쫓기면서 얽히가는 복수를 그렸다.

영화를 연출한 크리스티안 레브링 감독은 다섯 살 때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존 포드, 샘 페킨파, 하워드 혹스 감독 등 고전 서부영화 감독들의 작품을 보고 자랐다. 이번 작품도 정통 서부영화의 분위기를 담아 최근의 변주된 서부영화들과 차별점을 둔 작품으로 완성시켰다.

크리스티안 레브링 감독은 "'웨스턴 리벤지'는 한 동안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 상상의 세계를 되살린 결과물"이라며 "정통 미국 서부영화에 대한 오마주이자 헌사다"라고 밝혔다.

/장병호기자

박정현 서인영 에일리

힙합에 푹 빠진 디바들

박정현, 브랜뉴뮤직과 콜라보
서인영, 자이언티 피처링 '생각나' 발표
에일리, 개코 솔로 앨범서 랩 도전

디바와 힙합이 만났다. 최근 솔로 여성 가수들은 힙합 뮤지션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가수 박정현은 21일 힙합 레이블 브랜뉴뮤직과 함께한 앨범 '싱크로퓨전 리나박+브랜뉴뮤직'을 발표한다. 싱크로퓨전은 박정현이 다양한 음악 장르의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프로젝트다. 박정현은 이를 통해 기존 정규 음반과 다른 새로운 모습과 음악에 도전하고 있다.

박정현이 이번에 도전하는 장르는 힙합이다. 이미 지난달 힙합 그룹 쨈쉬(레이블)의 멤버 라이와 호흡을 맞춘 '잠깐 만나'를 공개해 힙합과 만난 디바의 모습을 보여줬다.

박정현은 또 오는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다이나믹 듀오와 함께 크리스마스 시즌 공연 '그 해 겨울'을 개최한다. '그 해 겨울'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겨울 시즌 콘서트다. 박정현이 힙합 뮤지션과 함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수 서인영은 독특한 음색의 가수 자이언티와 손잡고 지난 17일 '생각나'를 공개했다. 지난해 '나를 사랑해줘' 이후 1년 만에 발표한 '생각나'는 가을에 어울리는 느린 템포의 소울 장르로 기계음은 최대한 배제하고 각각의 악기를 옛 방식으로 녹음한 곡이다. 이별 후 남녀의 감정을 그린 노래로 서인영은 "연애인이기 이전에 한 여자로서 솔직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자이언티는 현재 힙합 신에서 가장 주목받는 뮤지션이다. 최근 발표한 '양화대교'로 음원차트에서 승승장구 중이다. 서인영은 "자이언티의 팬이었다. 개성이 뚜렷한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서 먼저 하고 싶다고 연락했다"며 "우리 둘 다 목소리가 튀는 편이라 잘 어우러질까 걱정했는데 아주 훌륭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서인영의 기대대로 '생각나'는 음원 차트 1위를 기록 후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차세대 디바로 활동 중인 에일리 역시 힙합 뮤지션과 함께 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앨범 '매거진'에서 다이나믹 듀오와 함께 '미치지 않고서야'를 불렀다. '미치지 않고서야'는 리드미컬한 템포에 에일리와 편안한 음색과 다이나믹 듀오의 래핑이 돋보이는 곡이다. '미치지 않고서야'의 인연으로 에일리는 다이나믹 듀오의 멤버 개코의 솔로 앨범 '레딘 그레이'에도 참여했다.

개코는 에일리와의 작업에 대해 "노래만 잘 하는 게 아니라 랩도 잘 한다. 타고난 재능이 매우 뛰어난 친구"라며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칭찬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더 지니어스' 프랑스에 포맷 수출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

tvN 예능 프로그램 '더 지니어스'의 포맷이 프랑스어권 국가에 수출된다.

CJ E&M은 최근 미디어 기업 프리맨틀미디어 프랑스와 '더 지니어스'의 콘텐츠 포맷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프리맨틀미디어 프랑스는 프랑스어권 국가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회사다. '더 지니어스'는 앞으로 여러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현지 버전으로 제작·방영될 예정이다.

'더 지니어스'는 올해 초 네덜란드에 포맷을 수출한 바 있다. 이일광 CJ E&M 콘텐츠해외사업팀 부장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프랑스어권 국가에 '더 지니어스'와 같은 우리 콘텐츠가 더 많이 선보여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거듭된 포맷 수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CJ E&M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우리 콘텐츠를 알리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한 '더 지니어스'는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는 참가자가 매회 게임을 벌여 한 명씩 탈락하는 방식으로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게임 서바이벌 리얼리티다.

현재 세 번째 시즌 '더 지니어스: 블랙 가넷'이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에 방송 중이다. 개그맨 장동민, 가수 김정훈, 배우 하연주 등 연예인과 한의사 최연승, 대학생 오현민, 포커플레이어 김유현 등 일반인 참가자가 출연 중이다. /탁진기자

대한민국 밴드의 전설 춘천에 모인다

전인권·노브레인·국카스텐 등 신구 조화

낭만의 도시 춘천에서 최강의 라인업을 자랑하는 음악 축제가 열린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인권, 노브레인, 한상원밴드, 국카스텐, 시나위, 네이브레이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밴드들이 오는 24~25일 열리는 '2014 춘천밴드 페스티벌'에서 30시간 춘천을 달군다.

이 기간동안 춘천 중도 선착장 수변공원에서는 한국 밴드 1세대부터 현재까지 최고의 뮤지션들이 관객과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페스티벌 준비위원회 측은 "음악을 사랑하고 삶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열정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락밴드 페스티벌은 비싼 입장료와 외국밴드 위주로 편성된 밴드 매니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이번 축제는 저렴한 입장료로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슈퍼밴드의 공연이 단연 눈에 띈다.

첫날인 24일 오후 4~9시 5시간 동안 이어지는 공연에는 코어매거진과 블루파프리카, 이지현과 벗님들, H2O, 네이브레이크, 시나위,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브레인, 전인권밴드 등이 출연한다. 25일에는 함중아·장계현 밴드, 최이철 사랑과평화, 윤철기와 키브리디스, 블랙스 게이트플라워즈, 한상원밴드, 조공샷락스, NATY, 국카스텐 등이 참가한다.

이어 24일과 25일 공연이 끝난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는 유명 DJ들과 파티존에서 리듬에 몸을 맡길 댄스 타임이 준비돼 있다. 박명수(G.Park)와 디제이 디오씨의 이하늘(난리부르스)을 중심으로 '제이비', '에스2' 등 파티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표 DJ들이 클럽파티를 이끈다.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도 축제 양일 간 오후 시간대에 진행된다. 24일에는 예선전이 펼쳐지고 25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낼 예정이다. 송홍섭, 한상원, 정원영, 손성제가 심사위원으로 나서며 대상 1팀에게 500만원의 상금과 최고의 프로듀서와 함께 싱글앨범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금상엔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3개팀과 인기상 1팀에게는 각각 30만원이 전달된다.

1일 이용 입장권은 3만원, 2일 모두 이용권은 5만원이며 미취학 아동은 무료입장이다.

/김병호기자 kimc0@이하

날씨

10/20月 일출시각 06:44 일몰시각 17:4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6.co.kr

지역	기온
서울	14/17
청주	14/18
대전	14/17
전주	15/20
광주	15/21
제주	18/24
강릉	13/17
울릉도	16/18
대구	15/18
포항	16/20
울산	16/21
부산	18/22

뇌졸중은 여성 70~79세, 남성 60~69세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가급적 따뜻할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관절 계절증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2			7		
					3	9	4	8
				7			5	6
1		7	4					9
	4						1	
8					9	4		7
7	1			9				
3	2	9	8					
		4			2	3		

	5		2	3		4	7	
4								
	2	8		5	1		9	
3							5	
			8	7	2			
	7							8
	3		7	8		5	6	
								7
	4	7		9	5		3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연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 프랭크 롱고 지음)

샤르도네 양조를 둘러싼 논쟁

조민호의 와인스토리

샤르도네는 평범함에서 최고의 비범함까지 품질의 폭을 극대화한 '화이트와인의 제왕'이다.

샤르도네 품종은 오래 전부터 발효와 숙성 논쟁이 끊임 없었다. 즉 품종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가공을 하지말자는 주장과 '발효와 오크통 숙성을 해서 고급 와인을 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해 왔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각자의 자기 주장대로 원하는 와인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무승부라고 할 수 있겠다.

샤르도네 품종의 고향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논쟁을 통해 양조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인 지역은 누가 뭐래도 부르고뉴다. 샤르도네 발효와 숙성 기술을 전세계에 전파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부르고뉴에서 고급 화이트와인을 생산하는 곳은 코트도르다. 특히 뫼르쏘와 몽라쉐 와인은 그 중에서도 으뜸이다. 이들이 양조하는 과정을 들여다 보면 샤르도네 발효와 숙성의 특징 세 가지가 발견된다.

첫번째는 시고 강하고 거친 사과산을 부드러운 유산으로 바꿔주는 젖산 발효다. 젖산 발효는 통상 레드와인의 양조에 적용되는 2차 발효 과정이다. 화이트 품종은 젖산 발효를 하지 않지만 샤르도네는 이 과정을 거친다.

장기 오크통 숙성을 거치는 것도 특별한 점이다. 웬만한 화이트와인의 숙성은 거의 예외 없이 스테인레스 스틸 통을 사용하며 설혹 오크통을 사용한다 해도 기간을 짧게 한다. 산뜻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코트도르에서는 샤르도네를 오크통으로 장기 숙성한다. 몽라쉐의 경우 10년 이상 숙성을 거쳐 부케(오크 숙성 향)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리(Lees)라고 부르는 효모 찌꺼기 혹은 효모가 죽은 사체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샤르도네 숙성론자들은 리를 그대로 놔둔 채 와인을 숙성한다. 그러면 와인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또한 버터와 같은 크림 향이 더해진다. 코트도르의 화이트와인은 이같은 자기만의 방식을 통해 훌륭한 품질을 고집해 왔다. 좋은 빈티지의 특급 와인은 수십만원을 호가한다.

샤르도네는 때로는 산미 넘치고 과일향 강한 일반 와인에서 최고급까지,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품종이라 하겠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13살 반려견 이별준비 해야하나요
마지막까지 사랑해주면 아픔 덜어

Q 행운이 가득 여자 87년 8월 2일 오전

제 주변에서 이해를 해고하는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식처럼 키웠던 반려견이 최근 들어 행동도 이상하고 노견(13세)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이별을 준비해야하는지요. 보통 제주 년에 이별을 하게 되면 사주에 나타나는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자식이상입니다. 내막 언제쯤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려견은 잘 될 수도 없고 물려주지도 않아서 속 앓이만 합니다. 꼭 답변주세요.

A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운명이나 전터, 모자를 사용하는데 동물들의 생태와 성질에 비유를 두고 한 개인의 성정과 행동 개인의 일면을 밝히는 소재로 실생활에 까지 게 되었습니다.

고전들은 이미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중대사를 두고 쉬어지지에 비숙된 동물들을 비유하여 분석했다는 얘기입니다. 87년 8월 2일로 가능해 본다면 2015년 음력 11월이 사랑하는 누군가와는 이별을 하는 시기입니다.

말하는 의미이 발달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도 마찬가지이겠으나 반려식구들의 나이는 어떻게 의해 판별된다고 합니다. 반려어가들의 수명도 최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10~15년 정도로 신장된다고 하는군요. 필론의 요지를 보고 보고 되어 있는 자료로 살펴보니 대개 시냇개나 투견 등 격심할 운동을 하는 개는 단명하기 쉬운데 기적에서 사다 하는 테리어종이나 신살개 등은 20년 정도를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반려견의 나이에 6을 곱해서 대략 나이를 계산하여 13세 노견이라면 사람의 나이로 78세정도 라고 합니다.

물론 정확성이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 요크셔테리어가 7살인 경우 사람의 나이로 보면 42세라고 하는데 반려견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수명에 편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하튼 항상 사랑으로 대해 주시면 이별의 순간을 맞이해도 아픔이 조금은 덜할 것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과 축생도 윤생계의 육도에서 자신이 윤회를 하는 존재이므로 비록 말 못하는 축생들지라도 죽음을 맞이하면 혹시 월지님이라면 기비이 여기지 말고 당연히 광명진언과 지장기도를 해주어 천장소멸과 극락왕생을 발원해주면 그 공덕이 크다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할 클릭커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0일 (음 9월 27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심심할 정도로 무탈한 하루~ 60년생 부동산 매입은 지금이 적기다. 72년생 좋은 주장도 오래가면 싫増니는 법~ 84년생 사랑도 골든타임이 있다.

소 49년생 잘 풀리던 일에 걸림돌 생긴다. 61년생 내 것이 아니면 눈길도 주지 말라. 73년생 도반지 소중함 뼈저리게 깨닫는다. 85년생 잘 해줄 한 다음 권리 요구할 것.

호랑이 50년생 답장 필요 없는 물건 구입 삼도록. 62년생 고민은 해결이 된다. 74년생 생각도 못한 반가운 벗이 와서 미호~ 86년생 생각을 바꾸면 없던 길도 생긴다.

토끼 51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63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더욱 편안해 짐~ 75년생 동료와 겨루면 잃는 게 더 많다. 87년생 뒤엉직은 성과금 전지 기대해 보자.

용 52년생 사정 급해도 꼼수는 말라. 64년생 지천 그대에게 설 틈이 생긴다. 76년생 초고할 있어도 우회적으로 할 것. 88년생 오늘의 쓴맛은 내일의 보약이 된다.

뱀 53년생 외출하면 한이 좁건다. 65년생 뒤로가 없는 곳에 발 들이지 말라. 77년생 배수진 치고 최선 다하면 새 길 열린다. 89년생 연인의 애정공세에 오 해피~

말 42년생 갯이 어려우면 확해 비를 맞아라. 54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66년생 남들 탓하기 전에 자신 돌아보라. 78년생 일은 즐겁고 기분은 상쾌하다.

양 43년생 마음을 작잠이 필요하다. 55년생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 말라. 67년생 상사와 맞서서 좋은 일이 없다. 79년생 상처투성이가 될 싸움은 하지지 말라.

원숭이 44년생 갈등 필씨 안 만드는 게 상책~ 56년생 할 삼은 진 등 골에 심시된다. 68년생 훈수는 자리를 봐가 따라. 80년생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하는 혜안 필요하다.

닭 45년생 고집부리면 벼랑에 몰린다. 57년생 자녀가 기분 좋은 소식 전한다. 69년생 작지만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81년생 올 것은 또 오니 대비책이 한다.

개 46년생 좋은 일엔 후원자 되라. 58년생 자녀가 기대에 부응한다. 70년생 거창한 계획보다 실속 챙기는데 몰입하라. 82년생 둥근 베팅은 둥근 선물을 안긴다.

돼지 47년생 사업에 투자하면 득 본다. 59년생 아끌먹은 일이 무산되어 허탈~ 71년생 직장인들은 동기의 경진시대가 온 격이다. 83년생 지금 놓치면 기회 없으니 과감할 것.

LG 대승… '가을의 전설' 시작했다

1회만 6실점, 허탈한 NC의 PS 첫무대

19일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 LG 트윈스 대 NC 다이노스의 경기. 1회초 3점짜리 홈런을 치낸 LG의 최경철 /연합뉴스

정규리그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한 LG 트윈스가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먼저 웃었다.

19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5전3승제) 1차전에서 LG는 NC 다이노스를 13-4로 대승을 거뒀다.

이날 경기에서 LG는 1회에만 최경철(34)의 3점 홈런을 포함해 6점이나 뽑으며 승세를 잡았다. 홈런 두 방을 포함한 장단 16안타로 NC 마운드를 두들겼다. 포스트시즌을 통틀어 역대 5번째로 선발 전원 득점을 기록한 대승이었다.

LG의 '안방마님'인 최경철은 비거리 3점포로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 또한 9년을 기다려온 '가을 갈증'도 풀었다. 올해 준플레이오프 전까지 최경철의 통산 포스트시즌 출전 경력은 한경기가 전부였다.

2006년 SK 소속으로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를 치렀으나 타석에 단 한번도 서지 못했다. 이날의 홈런은 9년의 기다림을 해소하기에 충분했다. 최경철은 이날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LG는 정규시즌 4위로 포스트시즌행 막차를 탔다. 이날 경기 승리로 기선 제압에 성공하면서 준플레이오프 통산 6연승을 달렸다.

앞서 세 차례 준플레이오프를 치른 LG는 1993년과 1998년 OB 베어스를 상대로 각각 2승1패와 2승, 2002년에는 현대 유니콘스를 상대로 2승을 거두고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반면 정규시즌 3위를 차지하며 창단 후 역대 최단 기간인 2년 만에 포스트시즌 무대에 오른 NC는 가을잔치 첫 경기에서 제대로 쓴맛을 봤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5전3승제인 준플레이오프만 따질 경우 7차례 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경우는 세 차례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한편 LG와 NC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은 20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NC는 찰리 쉬렉을, LG는 코리 리오단을 선발 투수로 예고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준PO 1차전 19일

■ 마산

LG	601	010	050	13
NC	010	010	011	4

백규정 LPGA 직행 티켓 획득

하나외환 챔피언십 연장전 우승

백규정(19·CJ오쇼핑·사진)이 한국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연장전 끝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19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6천364야드)에서 열린 하나외환 챔피언십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백규정은 합계 10언더파 278타를 쳐 전인지(20·하이트진로), 브리트니 린시컴(미국)과 연장전을 벌였다.

연장전은 18번홀(파5)에서 치러졌다. 백규정은 세 번째 샷을 홀 1m에 붙인 뒤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린시컴을 따돌렸다. 전인지는 세 번째 샷이 워터 해저드에 빠져 보기를 적어냈다.

이로써 백규정은 2006년 홍진주 이후 8년 만에 LPGA 투어가 주관하는 이 대회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소속 선수로 우승한 선수가 됐다.

또한 한국여자 골프는 역대 처음으로 한 시즌에 LPGA 투어 우승을 통해 2명의 미국 진출 선수를 배출하게 됐다. 올 시즌에서는 앞서 김효주(19·롯데)가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백규정은 올해 두 번째로 LPGA 투어 정상에 오른 KLPGA 선수가 됐다.

/장병호기자

손흥민, 훨훨 날았다

슈투트가르트전 2골 1도움 '맹활약'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엘 레버쿠젠의 손흥민(22·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맹활약을 펼쳤다.

18일(현지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메르세데스-벤츠 아레나에서 열린 슈투트가르트와의 2014-2015 분데스리가 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손흥민은 전반 4분과 전반 9분에 잇달아 골을 넣었다.

지난달 12일 3라운드에서 베르더 브레멘을 상대로 정규리그 첫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지난달 24일 아우크스부르크와의 5라운드 이후 분데스리가에서 3경기 만에 시즌 3·4호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지난 10일 파라과이, 14일 코스타리카와의 국가대표 평가전을 소화한뒤 돌아가 이날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다. 전반 4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슈테판 키슬링이 수비와 경합하다 넘어지면서 흐른 공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따내 왼발 슛을 꽂았다.

이어 5분 뒤 상대 골키퍼 토르스텐 키르슈바움이 멀리 차내지 못한 공이 손흥민 쪽으로 향했고,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오른쪽 모서리 부근에서 가슴트래핑 후 벼락같은 오른발 중거리 슛을 꽂아 9분 만에 2골을 기록했다.

또한 전반 41분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벨라라비가 내준 공을 다시 패스하면서 벨라라비의 추가골을 도와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레버쿠젠은 손흥민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후반 슈투트가르트에 3골을 내줘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에서 연속 무승부 기록이다.

/장병호기자

오승환, 日 센트럴리그 MVP에

한신 타이거스 일본 시리즈 진출 일등공신

오승환(32·한신 타이거스·사진)이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리그 클라이맥스시리즈(CS)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일본 스포츠닛폰은 18일 센트럴리그 CS 파이널스테이지 4차전이 끝난 뒤 "오승환이 센트럴리그 CS MVP를 수상했다"고 전했다. 오승환은 MVP 상금 100만엔(약 1천400만원)을 받았다.

앞서 오승환은 18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파이널스테이지 4차전에서 8-2로 앞선 9회말 마운드에 올라 팀을 일본 시리즈 진출로 이끌었다.

와다 유타카 한신 감독은 세이브 상황이 아님에도 오승환을 마운드에 세웠다. 앞선 파이널스테이지 3경기에서 연속 세이브를 거둔 마무리 오승환에게 일본시리즈 진출을 확정 짓는 순간 마운드를 지키는 '도아게 투수(우승을 확정 짓는 경기의 마지막 투수를 일컫는 일본 프로야구 용어)'의 영광을 안기고 싶은 의도였다.

오승환은 첫 상대타자 프레데릭 세페다에게 시속 147㎞짜리 직구를 던지다 우월 솔로포를 허용했고 후속타자 사카모토 하야토에게는 좌월 솔로포를 맞았다.

한신은 이날 홈런 3개를 포함한 11안타를 효과적으로 몰아치며 8-4로 승리했다. 25일부터는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니혼햄 파이터스의 퍼시픽리그 파이널스테이지 승자와 7전4승제의 일본시리즈를 치른다.

퍼시픽리그 파이널스테이지에서는 이대호(32)가 4번타자로 활약하는 정규시즌 우승팀 소프트뱅크가 3승 2패로 앞서 있다. 소프트뱅크가 일본시리즈에 진출한다면 오승환과 이대호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 시리즈에서 한국인 투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김학철 기자 kimc0604@

프로축구 전적 19일

수원	2	2	성남
부산	4	0	경남
울산	2	1	상주

프로농구 전적 19일

KT	14	12	7	22	55
SK	11	21	19	21	72
오리온스	16	15	24	24	81
모비스	16	14	27	17	74
LG	18	16	21	7	62
동부	19	23	23	15	80

프로배구 전적 19일

우리카드	1	3	대한항공
GS칼텍스	2	3	흥국생명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처음처럼
부드러운 소주